



# 세계의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 \* 학생맞춤통합지원

### ✓ 학생맞춤통합지원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

### ✓ 학생맞춤통합지원: <조기 발굴-맞춤형 지원-지역 및 정보 연계>를 통해 통합지원 누리집 운영(<https://www.kedi.re.kr/studentsupport>)

### ✓ 유형별 지역자원 기관 및 서비스 예시

- ▶(경제) 위기학생 긴급지원, 장학금, 주거환경개선, 자립지원, 여성용품키트 지원, 식사 제공 등
- ▶(돌봄·안전) 야간 돌봄, 긴급돌봄, 학교밖 방과후 프로그램, 위기아동 양육지원, 아동학대 성폭력 대응 등
- ▶(학업) 진로탐색, 느린학습자 특별지도, 한국어교육, 숙제지도, 독서지도,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
- ▶(건강) 체육활동(축구교실 등), 청소년 건강검진, 영양교육, 영양지원, 치과 치료비, 수술비·보장구 등
- ▶(심리·정서) 상담(개인·전화사이버·가족 등), 종합심리검사, 모래놀이, 언어치료, 스마트폰과의존치유프로그램 등
- ▶(기타) 약기나눔, 수화통역, 문화체험, 부모교육, 청소년동아리 지원, 청소년 활동 시설대관 등

[자료출처: 교육부 블로그]

## \* UN 아동권리협약

### ✓ UN 아동권리협약(198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을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

[자료출처: 나무위키]

### ✓ 우리나라는 UN회원국(1991년~)으로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학습권, 발달권, 건강권 등 보장 의무가 있음

[자료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1 아동의 정의 -18	2 차별하지 않기	3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4 일상에서 누리는 권리	5 가족의 역할	6 생존과 발달	7 이름과 국적
8 신분 보호	9 가족은 늘 함께	10 다른 나라에 사는 부모님 만나기	11 남치로부터 보호	12 아동의 의견 존중	13 표현의 자유	14 생각과 종교의 자유
15 모임 만들고 참여하기	16 사생활 보호	17 정보 접근하기	18 부모의 책임	19 폭력으로부터 보호	20 가족이 없는 아동	21 입양 아동
22 난민 아동	23 장애 아동	24 영양과 건강, 환경	25 시설 아동 실태 조사	26 사회 경제력 지원	27 음식, 옷, 안전한 집	28 교육
29 교육의 목적	30 소수 문화, 언어와 종교	31 여가, 놀이, 문화, 예술	32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33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	34 성 착취로부터 보호	35 인신매매와 유괴 예방
36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	37 구금된 아동 보호	38 전쟁 상황에서 아동 보호	39 회복과 사회복귀	40 법을 어긴 아동	41 아동을 위한 최선의 법	42 아동권리 알리기
43-54 협약의 이행	<h1>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h1> <p>유엔아동권리협약  for every child</p>					



독일에서는 다양한 배경에서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난민 배경을 가진 학생, 장애 학생 등을 위한 사회 다방면 촘촘한 연결 지원으로 포용적인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난민 도우미를 위한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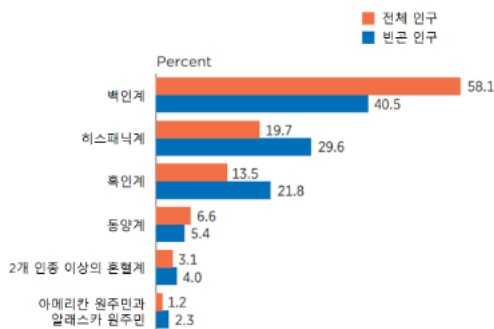
스포츠를 통한 통합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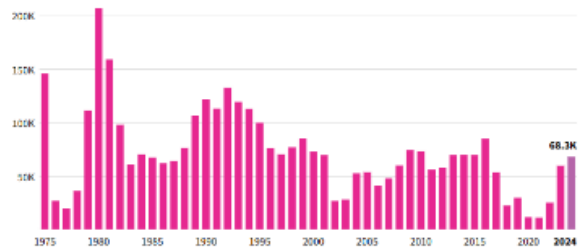
브란덴부르크주 장애인 정책 대책 패키지 3.0



미국 인구 조사국의 「2023 미국의 빈곤율 보고서」는 보조 빈곤 척도(SPM)를 사용하여 SPM 아동 빈곤율을 조사했는데 2022년에는 12.4%, 2023년에는 1.3% 증가한 13.7%로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 난민 아동의 대다수를 수용하는 15개 국가 중 미국에는 약 330만 명의 난민 아동이 살고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음식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빈곤 가구 임시 부조, 비동반 난민 아동 지원 프로그램, 비동반 이민 구금 아동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인의 인종별 빈곤율



1975-2024년의 미국 입국 난민의 수



## 핀란드

핀란드의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은 **형평성으로서의 교육 평등(Equity) 실현**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따른 결과물이다. 핀란드는 이를 위해 지원의 원칙을 세우고 장애 학생, 이주 배경 학생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핀란드의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의 실현 과정

#### 학생 지원의 원칙

- 포용성 (보편적 복지의 제공)
- 개별화된 지원 (3단계 지원 체계)
- 협력을 통한 지원(학생 복지 기구)



####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 장애 학생, 이주 배경 학생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
- 접근성 보장, 맞춤형 생활 서비스, 디지털 교육, 언어 교육, 전환기 프로그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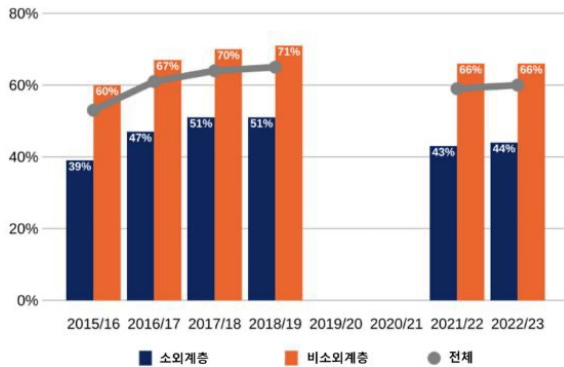
#### 형평성으로서의 교육 평등

- 교육 과정의 평등 추구를 통해 사회적 평등과 발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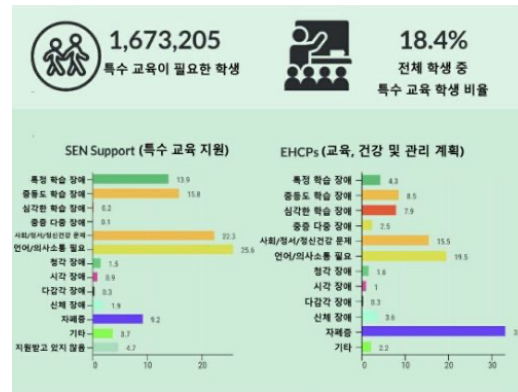


## 영국의 맞춤형 학생 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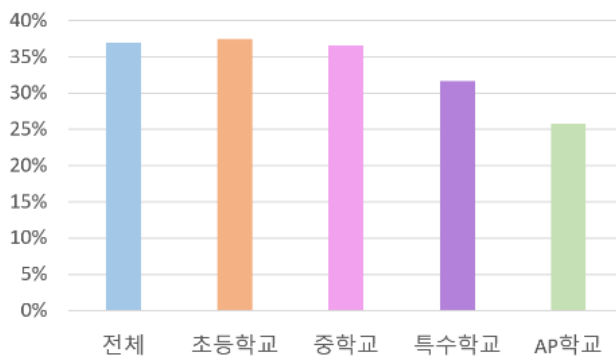
지원대상	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생 지원	잉글랜드의 학생 지원금(Pupil Premium)
	스코틀랜드 성취 도전(Scottish Attainment Challenge)
	웨일즈 학생 발전 보조금(Pupil Development Grant)
	북아일랜드 RAISE 프로그램
	무료 학교 급식(FSM: Free School Meal)
특수 교육 및 장애 학생 지원	교육 유지 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교육 투자 지역(Education Investment Areas) 지원
특수 교육 및 장애 학생 지원	특수 교육 필요 및 장애(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 프로그램
소수민족 학생 지원	교육, 건강 및 관리 계획(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 EHCP)
	추가 언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EAL) 프로그램



계층별 학생의 읽기, 쓰기, 수학 과목에서의 기대 기준 도달 비율



영국 학교에서의 특수 교육 대상 학생 [자료출처: ASCL Council]



2022/23학년도 취학 연령 학생 중 소수 인종 비율



일본

### 저소득층 학생(빈곤 아동)



2024년 6월 19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아동 빈곤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법」이 가결되었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일본의 17세 이하 아동 빈곤율은 11.5%로, 약 8.7명의 아동 중 1명이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최대한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 빈곤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법 가결

### 장애학생

일본에서는 장애 여부를 떠나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재해가 많은 일본의 특성상 학교가 지역 주민들의 피난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에서의 배리어프리(무장애)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20년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통칭 '배리어프리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때 배리어프리법 상의 '특별 특정 건축물'에 공립 초·중학교 등이 추가되었다.

### 난민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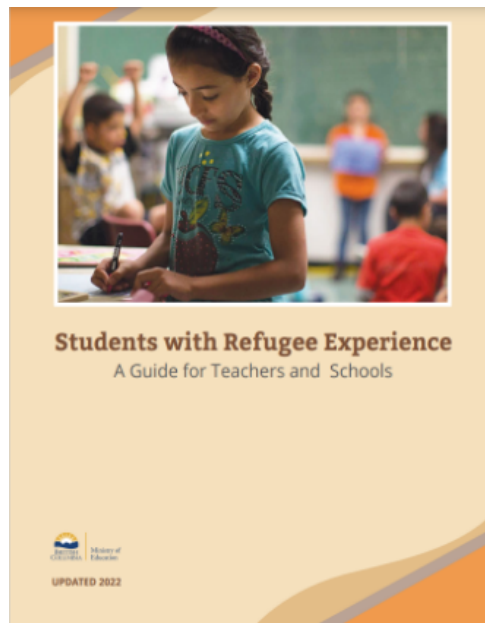


일본의 난민 사업 본부(RHQ)에서는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난민 정착자를 대상으로 한 정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어 학습지원을 포함한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RHQ 지원센터에서 6개월간 일본어 학습 및 생활 지도를 제공 받는데 유아의 경우 실제 어린이집에 등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생활을 경험하기도 하며, 학령기 아동의 경우 거주지 학교로의 전학을 전제로 매일 일본어와 수학 등의 기초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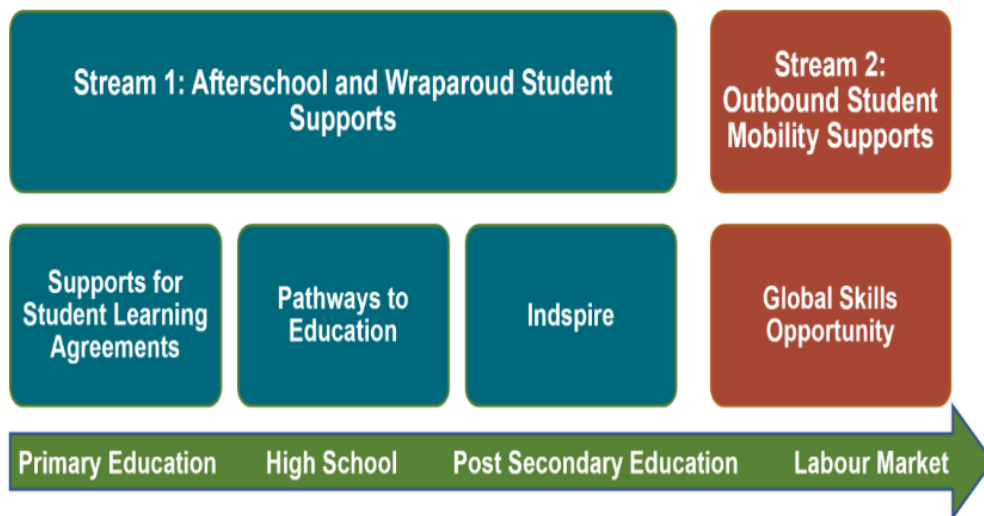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 참가



캐나다는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해 난민 학생, 교육 소외 계층, 장애 학생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청은 난민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사,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각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 및 방과 후 지원과 해외 유학과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



난민 학생 교육



학생 학습 지원 프로그램(SSLP)의 구조



프랑스의 교육정책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교육정책(REP)은 취약지역에 자원을 집중하고 학급 크기를 줄여 교사의 개별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학업 성취를 높이고, UPE2A 프로그램은 난민 학생들에게 언어 교육과 개별 학습 지원을 제공해 학교 적응을 도우며, RASED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에게 심리적, 특수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 학업 성취와 사회적 적응을 촉진한다.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까지의 우선교육정책에 입각한 지원 체계**  
 [자료출처: <https://grand-quevilly.circonscription.ac-normandie.fr/spip.php?article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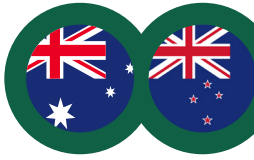
**난민 지원 프로그램 구성원**

[자료출처: <https://inspirelle.com/why-french-school-lunches-outshine-other-cafeterias/>]



**장애 학생 지원 장면**

[자료출처: <https://inspirelle.com/why-french-school-lunches-outshine-other-cafeterias/>]



## 호주, 뉴질랜드

호주에서는 난민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문화 적응과 언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을 설립하였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 프레임워크, 비유(Be You) 프로그램, 학생 웰빙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뉴질랜드에서는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다양성 존중을 교육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난민 학생을 위해서 교육부와 고등교육위원회는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으며,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초기 진단부터 학습 지원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와 빅토리아 주의 난민 지원 재단



호주 교육부의 웰빙 지원 프로그램



뉴질랜드 교육부와 고등교육위원회의 난민 지원 가이드북



뉴질랜드 교육부의 포용적 교육 정책

기획 및 편집 교육연구사 박효진  
발간위원 8명

표지 디자인 영주가흥초등학교 교사 최신영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

TEL 054-840-2276

WEB www.gbe.kr/gber



# 세계의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 독일의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발간위원 : 최신영 (영주가흥초등학교 교사)

## 1. 독일의 이민 및 난민 배경을 가진 가족 지원

현재 독일에서는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이민 이력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나 가족 이민 이력이 있는 가족이 독일의 550만 가족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독일 가족 중 27%의 가족은 부모 모두 해외에서 태어났고, 16%의 가족은 부모 중 한 명이 해외 출생이다. 이들 가족의 통합, 참여 및 평등한 기회를 장려하는 것은 독일 연방 가족부의 주요 역할이다. 독일 연방 가족부는 이민 가족의 노동 시장 참여, 더 나은 보육 및 교육, 숙련된 인력 채용, 이민자 배경을 가진 부모의 이익 대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모와 함께 독일에 이민한 어린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집중적인 교육 지원과 혜택을 받는다. 독일 전역에는 약 15,000명의 부모 동반자가 있는데, 부모 동반자는 일상적인 가족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 또는 난민 배경을 가진 가족을 도와주는 사람을 뜻한다. 부모 동반자는 가족 교육 센터, 어린이집, 학교 또는 청소년 복지 센터 등과 이민자 배경을 가진 가족 사이에 다리를 놓으며 도움을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들은 독일 사회의 정착에서 어려운 시작 조건을 가진 아이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며, 이민자 배경의 부모에게 자녀 교육 기회와 진로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

부모 동반자는 가족이 유아기 및 초등 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것을 지원하고, 제공 서비스를 통해 다른 가족과의 접촉을 구축한다. 독일에서의 사회적 참여는 독일 가족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2. 독일의 난민 배경 학생 교육 기회 제공: 브란덴부르크주 중심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2023/24학년도에 총 15,433명의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브란덴부르크의 공립 일반 학교 및 직업 학교에서 가르친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학생 5,375명, 시리아 학생 2,045명, 아프가니스탄 국적 학생 1,437명이 포함된다(데이터 출처: 이민 조사, 기준일: 2023년 11월 6일). 2023/24학년도에 공립 일반 학교에는 111개의 준비 그룹과 1,583개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

외국어 학생은 독일어 언어지원이 필요한 학생인데, 여기에는 난민 배경을 가진 신규 이민자도 포함된다. 제2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지원을 위한 결정적 요인은 국적에 상관없이 독일어에 대한 지식 여부에 달려 있다.

독일로의 망명 신청자와 난민 가족의 자녀는 독일 내 모든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보육 및 학교 시설 이용에 대한 동일 법적 권리를 갖는다. 1세부터 초등 4학년 말까지, 가족 상황이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그 이상까지 보육 및 학교 시설 이용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다. 난민 가족이 독일 내 해당 자치 단체에 거주하게 되면 최초 접수센터에 머문 후, 부모는 관할 청소년 복지관이나 자치 단체에 보육 및 학교 시설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망명 신청자와 난민 가족의 어린이와 부모의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다른 국가, 문화, 언어, 독일어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와 부모, 정신적 트라우마를 받은 어린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 보육 직원 자원, 보육 교사를 위한 교육 기회 및 보육 장비 지원 자금을 제공한다.

수용 시설에 머무는 망명 신청자와 난민 가족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규정에 따라 3개월 동안 의무 교육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의무 교육이 중단되는 3개월 동안 언어 교정 과정을 제공하며,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 의지에 따른다. 망명 신청자와 난민 가족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수용 시설에 3개월 이상 머물러 의무 교육받는 경우, 의무 교육은 해당 수용 센터 위치의 준비 그룹 내에서 이루어지며, 참여는 필수이다.



[그림 1] 난민 부모를 위한 안내서(독일어)



[그림 2] 난민 도우미를 위한 조언

전통적인(일반) 어린이집은 모든 이에게 적합하지 않고, 특히 난민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를 부모와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공동숙소 등에서 부모 자녀 모임 등 공동교육 및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브란덴부르크주의 수용 시설에 머물지 않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지역에 이주한 후 6주 동안 의무 교육이 중단된다. 모든 외국어 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수용학교의 학생이다. 원칙적으로 나이와 학력에 맞는 학급(정규학급)에서 교육받는다. 학교장은 증명서나 관련 서류, 학생 및 학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 독일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낮다고 해서 학생의 학교 입학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는 보고된 학생 수와 상황에 따라 교사 시간을 받는다. 난민 어린이 등으로 인해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경우, 학교는 추가 교육 시간을 받는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독일어 지식이 정규 수업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언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준비 그룹과 지원 과정이 구성되며, 필요한 교사는 주 교육 당국에 의해 학교에 배정된다. 특별한 훈련을 받은 교사가 언어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훈련은 ‘문해력’과 ‘트라우마를 입은 난민 어린이’ 주제에 대한 기본 자격과 필수 추가 자격으로 구성된다.

성인 난민을 위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독일어, 오리엔테이션 및 통합 과정을 의미한다. 독일 연방이주난민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BAMF), 주정부, 지방 자치 단체 및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성인 난민을 위한 독일어 입문 강좌 및 읽고 쓰기를 위한 독일어 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 클럽 참여를 권장한다. 스포츠 클럽은 통합효과가 매우 높고 심리적·육체적 균형을 보장한다고 보기에 브란덴부르크주의 환영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 문화를 알아가는 것을 스포츠를 함께 즐기며 달성할 수 있다고 여긴다. 많은 난민이 브란덴부르크주의 스포츠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주의 스포츠 협회는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할 때 보험에 가입되도록 보장했다. 이 ‘스포츠를 통한 통합’ 프로젝트는 현재 전국적으로 102개의 스포츠 클럽, 협회, 지구 및 도시 스포츠 협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 배경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스포츠 활동을 제공한다.



[그림 3] 스포츠를 통한 통합 콘퍼런스



[그림 4] 스포츠를 통한 통합 프로젝트

### 3. 독일의 난민 배경 학생 교육 기회 제공: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중심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폭력과 박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난민이 유입되며,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난민을 위한 의무 교육이 해외에서 이주한 지 6개월 후부터 시작된다. 반면, 학교에 다닐 권리는 처음부터, 즉 학교에 다닐 의무가 시작되기 전에 존재한다. 이러한 구별은 외상을 입을 수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도착하자마자 의무를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탈출 경험을 극복할 시간을 주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의무 교육은 이민 후 6개월 후부터 시작되며 체류 가능성에 상관없이 출국 의무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된다.

출신국에서 취득한 교육 자격은 슈투트가르트 지역 의회의 자격증 인정 사무소에서 전국적으로 담당한다. 현재 외국 교양 학력 인정 처리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난민 배경 어린이와 청소년을 특별 수업에서 가르친다. 일반 학교에서는 준비 수업이고, 직업 학교에서는 VABO(Vorqualifizierungsjahr Arbeit/Beruf mit Schwerpunkt Erwerb von Deutschkenntnissen, 독일어 능력 조사 증명서)이다. 이 수업에서는 난민 가족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독일어를 가르쳐서 정규 수업에 참여하거나 모국에서 인정하는 학교 자격에 따라 훈련을 이수하거나 다른 정규 직업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발판을 제공한다. 2023/24학년도에는 1,950개 이상의 준비반에 약 30,80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550개 이상의 VABO 수업에 약 9,500명의 학생이 있다.

준비 수업은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능한 한 빨리 독일어를 학습하여 정규 수업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독일어 외에도 학교 기술과 작업 방법도 배운다. 음악, 미술 및 기술 분야의 교과에는 정규 수업의 학생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학교생활은 정기적으로 상호 접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최상의 지원을 위해서는 난민 배경 어린이 및 청소년의 부모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규 수업에 통합되는 시기는 학교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교사가 개별적으로 유연하게 결정한다. 정규 수업에의 통합은 개별 학생의 개인적인 발전과 교육적 필요에 달려 있다. 일부 준비 수업은 정규 수업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며 예를 들어 스포츠나 음악 수업 등에서 점진적으로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VABO 수업에서는 독일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청소년들이 직업 학교의 VABO 수업에서 집중적인 독일어 지원을 받는다. VABO 수업을 통해 독일어 습득과 초기 전문 자격 취득을 하여 직업적·사회적 통합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기회를 얻는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학교 내 난민 배경을 가진 가족의 스트레스/트라우마를 가진 어린이나 청소년을 돕기 위해 학교 심리 상담 센터 등에서 추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4. 독일의 장애 지원

독일에서는 포용적인 사회를 지향하는데 포용(inclusion)은 소속을 의미한다.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학교, 직장, 이웃, 여가 등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통합이라고 보고 있다. 독일에서 포용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생활, 교육 및 노동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는 학교에서 함께 배운다. 모두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면, 서로 다른 것을 정상으로 보며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또 다른 예로, 계단이 적다면 유모차를 타는 유아, 노인,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수월한 시간을 보내고, 모든 것에 훨씬 더 잘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2009년부터 UN 장애인 권리 협약은 독일에도 구속력을 가져, 이에 따라 장애를 더 이상 일차적으로 의학적·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인권의 문제로 인식한다. 연방·주·지방 정부는 UN 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023년 8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장애인 정책 대책 패키지 3.0을 결정했으며, 이 패키지에는 모든 부처의 55개 대책을 포함하여 2027년까지 실행된다. 이 장애인 정책 조치 패키지 3.0에는 다음 9가지 실행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5] 브란덴부르크주 장애인 정책 대책 패키지 3.0

- 교육
- 인식 제고
- 일과 취업
- 건강과 관리
- 관광, 문화, 레저, 스포츠
- 자유와 보호 권리
- 참여, 옹호
- 자립생활, 이동하기 위한 수단, 건설
- 장벽 없는 소통과 정보

장애가 있는 모든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개인의 필요에 따라 어린이를 위한 보육 센터, 기타 보육 시설, 적합한 양부모 또는 주야간 시설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이 제공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특수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 교육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을 검토하고 추가 개발을 위한 제안을 위해 과학 보고서를 의뢰하였다. 이 과학 보고서의 공동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특수 교육 지원 요구에 대한 최대한 정확한 정의
- 일반 교육 시스템의 예방 확대
- 예방 중심의 자원관리 개혁

- 평가 절차의 표준화 및 디지털화
- 특수 교육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지역 전문센터 설립

도로테 펠러(Dorothee Feller)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부 장관은 “특수 교육 요구 관련 결정은 아동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절차는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절차의 질을 높이고, 과정을 간소화하며, 부모를 위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주 교육부는 특수 교육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특수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13학년도 약 128,000명에서 2022/23학년도에는 약 158,000명으로 증가했다. 특수 교육 요구 관련 결정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요청하는 평가 과정의 일부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게 특수 교육 지원이 필요한 유형과 정도가 결정되며, 교사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 과정을 세심하게 수행하는데, 해당 어린이나 청소년의 교육 전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평가 과정이 끝나면 학교 감독 당국은 특수 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하나 이상의 지원 영역을 결정하며, 가능한 지원에 대해 부모에게 제안한다.

## 5. 맺음말

독일에서는 다양한 배경에서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난민 배경을 가진 학생, 장애 학생 등을 위한 사회 다방면 촘촘한 연결 지원으로 포용적인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 【참고 자료】

- ▶ Bildungsangebote für Flüchtlinge und Zuwanderer, <https://km.baden-wuerttemberg.de/de/schule/allgemeine-informationen/faq-zur-integration-von-jungen-fluechtligen-in-baden-wuerttembergischen-schulen>
- ▶ Eingliederungshilfen, <https://mbjs.brandenburg.de/kinder-und-jugend/hilfen-zur-erziehung-eingliederungshilfen/eingliederungshilfen.html>
- ▶ Familien mit Migrationshintergrund,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chancen-und-teilhabe-fuer-familien/familien-mit-migrationshintergrund/familien-mit-migrationshintergrund-73588>
- ▶ Flüchtlinge - Kinder und Jugendliche, <https://mbjs.brandenburg.de/bildung/weitere-themen/fluechtlige-kinder-und-jugendliche.html>
- ▶ Menschen mit Behinderungen, <https://msgiv.brandenburg.de/msgiv/de/themen/soziales/menschen-mit-behinderungen/#>
- ▶ Ministerin Feller: Wir wollen die sonderpädagogische Förderung weiter verbessern, <https://www.schulministerium.nrw/presse/pressemittelungen/ministerin-feller-wir-wollen-die-sonderpaedagogische-foerderung-weiter>

# 미국의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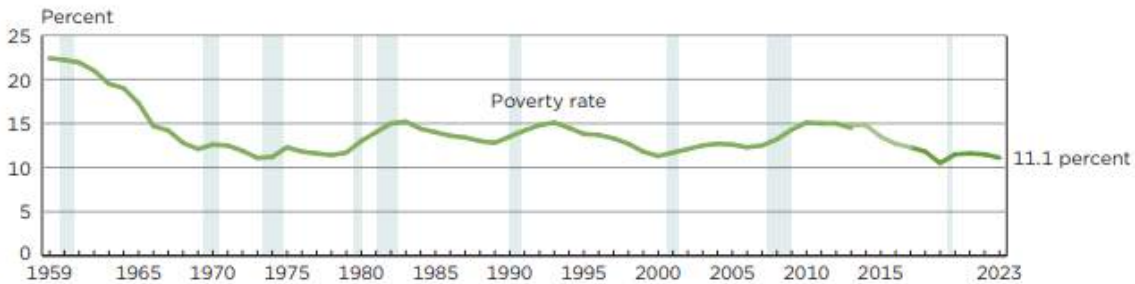
발간위원: 최현 (천생초등학교 교사)

## 1. 빈곤

### 가. 미국의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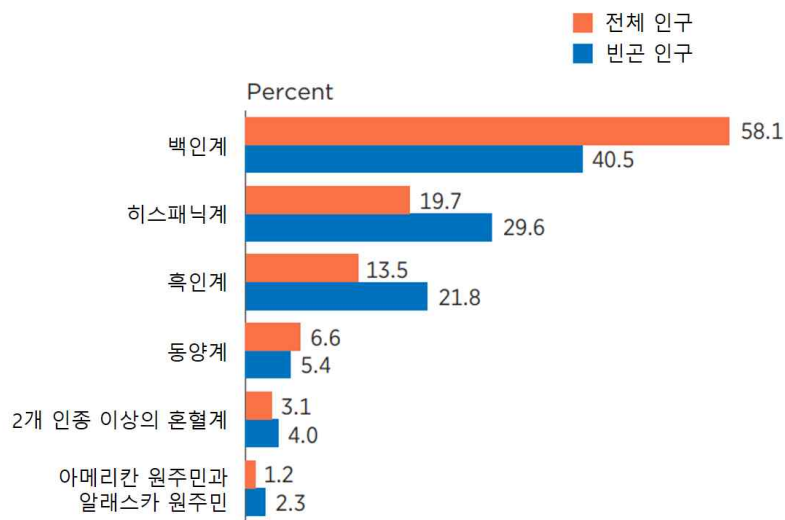
미국 인구 조사국의 「2023 미국의 빈곤율 보고서」는 공식 빈곤 척도(Official Poverty Measure)와 보조 빈곤 척도(Supplemental Poverty Measure, SPM)라는 두 가지 빈곤 척도를 사용하여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만들어진 공식 빈곤 척도는 세전 소득을 가족 구성에 따라 조정된 국가 빈곤 기준치와 비교하여 빈곤을 정의한다. 노동통계국과 협력하여 2011년에 처음 발표된 보조 빈곤 척도는 저소득층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2023년 공식 빈곤율은 11.1%로 2022년보다 0.4% 하락했다. 보조 빈곤 척도를 사용한 SPM 비율은 12.9%로 2022년보다 0.5% 증가했다. SPM 아동 빈곤율은 2023년 13.7%로 2022년보다 1.3% 증가했다.



[그림 1] 1959년부터 2023년까지의 미국 공식 빈곤율

백인계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58.1%를 차지하지만, 빈곤 인구는 40.5%이다. 반면 히스패닉계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19.7%를 차지하지만, 빈곤 인구는 29.6%, 흑인계는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지만, 빈곤 인구는 21.8%인 것을 보았을 때 히스패닉계 미국인과 흑인계는 전체 인구 비율과 빈곤 인구 비율의 차이가 다른 인종에 비해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2개 인종 이상의 혼혈계 미국인, 아메리칸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의 경우 빈곤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소폭 높다.



[그림 2] 미국의 인종별 빈곤율

### 나. 빈곤 아동 지원 정책

미국의 사회 복지 정책(Social Welfare Policy)은 현금 지원, 건강 보험, 식품 지원, 주택 보조금, 공과금 보조금, 교육 및 보육 지원을 포함한 연방 및 주 사회 프로그램이다. 사회 복지 정책은 1차 세계 대전 이전부터 제정된 아버지 없이 지내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주법에서 시작된다. 1932년에는 긴급 구호 및 건설법(Emergency Relief and Construction Act)이 통과되었는데, 대공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35년 사회 보장법은 지원이 필요한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적용되었다.

#### 1) 음식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음식 지원 프로그램은 신생아 및 5세 미만 어린이에게 건강식품을 제공하고, 학교나 어린이집

---

을 다니는 아동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식사나 우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SNAP 혜택은 직불카드와 같은 카드로 제공되며, 지역 상점이나 농산물 직판장에서 식료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다르다.

## 2) 메디케이드(Medicaid)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의 성인, 어린이, 임신부, 노인, 장애인의 의료 비용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방과 주 공동 프로그램이다. 연방 정부에는 모든 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따라야 하는 일반 규칙이 있으며 각 주마다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이고 자녀가 치료가 필요할 만큼 아프지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메디케이드에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가 없는 아동인 경우, 주에서는 스스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도록 허용하거나 성인인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다수 주에서는 최대 21세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 3)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은 가족의 소득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초과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못하지만, 주정부의 CHIP 기준에는 가족 소득이 해당하는 19살 이하의 비보험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의료 및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주 프로그램에는 CHIP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자체 기준이 있다.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정부 기관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CHIP 수혜 자격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CHIP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비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CHIP 혜택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에서는 정기 검진, 예방 접종, 의사 방문, 처방전, 치아 및 시력 관리, 외래 또는 입원 병원 진료, 엑스레이 서비스, 응급 서비스와 같은 포괄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 4) 빈곤 가구 임시 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빈곤 가구 임시 부조는 1997년 7월 1일에 시작되어 부양 자녀가 있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을 계승하여 빈곤 가구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다른 지원제도와 구분되는 TANF의 가장 큰 특징은 5년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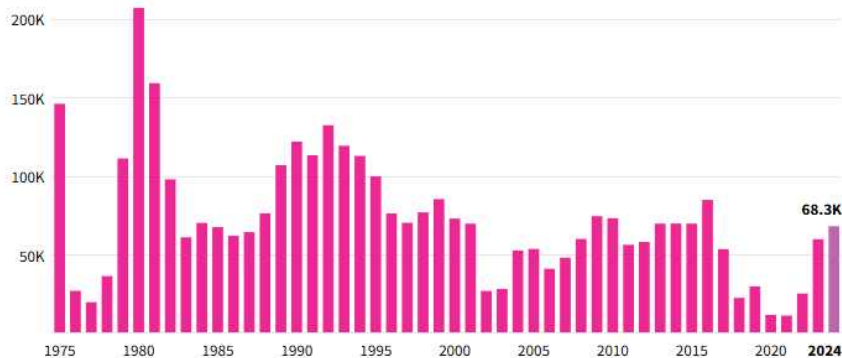
며 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이 삭감되거나 중단된다는 것이다. 만약 아이를 돌 봐야 하는 유일한 보호자일 경우, 임신 4개월 이후,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 또는 18세 이하일 경우,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있는 부모나 보호자일 경우에는 근로 의무 조건이 면제된다. 가정의 최대 월 소득이 연방 정부 빈곤선 185% (2인 2,823달러, 3인 3,550달러, 4인 4,728달러)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혜택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버지니아 지역은 월 최대 1인 316달러, 2인 422달러, 3인 508달러, 4인 589달러, 5인 701달러, 메릴랜드 지역은 월 최대 1인 328달러, 2인 575달러, 3인 727달러, 4인 870달러, 5인 1,010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 난민

### 가. 미국의 난민 현황

1975년 이후 약 36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 인구는 유타주의 인구보다 많은 수이다. 2021년 코로나 기간동안 40년 만에 최저치인 11,411명을 기록하였지만, 2023년에는 60,000명 이상의 난민이 입국했다.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연간 총 난민 수는 이미 68,000명을 넘는 상황이다. 또한 전 세계 난민 아동의 대다수를 수용하는 15개 국가 중 미국에는 약 330만 명의 난민 아동이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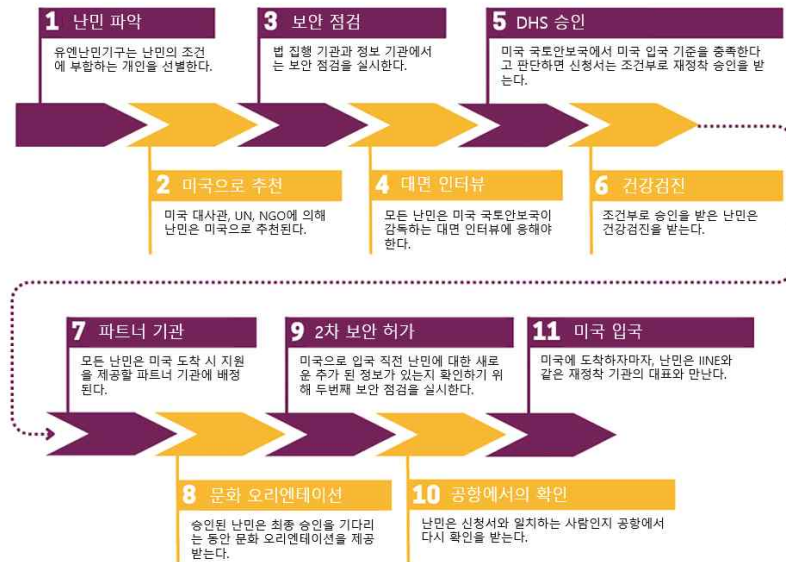
이민 및 국적법에 따라 정부에서는 매 회계연도에 입국할 수 있는 난민의 입국 한도를 정한다. 2021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민 한도를 15,000명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198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2021년 4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난민 한도를 62,500명으로 높였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난민 한도를 125,000명으로 높였다.



[그림 3] 1975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의 미국 입국 난민의 수

## 나. 난민 입국 과정

난민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미국의 심사 과정은 최대 2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난민 선정부터 입국까지는 11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 난민 입국 과정

## 다. 난민 아동 지원

난민 재정착 사무소(The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ORR)는 비동반 난민 아동과 비동반 이민 구금 아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2002년 국토안보법에서 처음 사용된 ‘비동반’이라는 표현은 미국으로의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고 18세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미국에 부모나 법정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 1) 비동반 난민 아동 지원 프로그램(Unaccompanied Refugee Minors, URM)

URM 프로그램은 박해, 폭력, 학대를 피해 부모나 보호자 없이 미국에 입국한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초반에는 난민 지위가 확인된 미성년자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피난민, 망명자, 쿠바 및 아이티 입국자, 인신매매 피해자 등 소수 인구에 대한 자격을 확대했다.

아동 복지와 난민 재정착 지원을 결합한 이 프로그램은 강제 이주와 힘든 가족사를 겪은 미성년자를 돌볼 수 있도록 독특하게 구성되었다. ORR은 URM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주택, 식량, 의

복 및 기타 생필품에 대한 간접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집중관리 서비스 제공, 영어 훈련 및 교육 제공, 자립생활 준비, 교육 훈련 이용권 제공, 신체와 정신 건강 관리, 직업 훈련, 사회 적응, 민족 및 종교 유산 보존, 이민 지원, 가족 추적 및 재결합에 도움을 주고 있다.

## 2) 비동반 이민 구금 아동(Unaccompanied Alien Children, UAC) 지원 프로그램

UAC란 보호자가 없고 불법적인 입국 방법으로 체포되었거나, 입국 시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미성년자를 뜻한다. UAC 지원 프로그램은 2003년에 시작되어 2011년까지 연간 8,000명 미만의 아동을 보호했다. 2018 회계연도에는 49,100명의 아동이 프로그램에 추천되었으며, 2019년 4월에는 일일 추천건만 287건까지 증가했다. 2021년 4월에는 UAC가 급증하여 17,000명 이상의 아동이 보건복지부 보호소에서 보호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보호소에서 보호를 받는 동안 UAC는 지역 학교에 등록되지는 않지만 보건복지부 보호소를 운영하는 담당자로부터 교육 서비스 및 기타 보호를 받는다. 합법적인 이민 과정이 진행된다면 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후원자와 거주하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UAC는 미국의 모든 아동과 동일하게 연방법에 따라 지역 사회의 공립 초중등학교에 등록하고 교육 서비스 혜택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 3. 맺음말

미국 인구 조사국의 「2023 미국의 빈곤율 보고서」는 보조 빈곤 척도(SPM)를 사용하여 SPM 아동 빈곤율을 조사했는데 2022년에는 12.4%, 2023년 13.7%로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 난민 아동의 대다수를 수용하는 15개 국가 중 미국에는 약 330만 명의 난민 아동이 살고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음식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빈곤 가구 임시 부조, 비동반 난민 아동 지원 프로그램, 비동반 이민 구금 아동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참고 자료】

- ▶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2023, <https://www2.census.gov/library/publications/2024/demo/p60-283.pdf>
- ▶ Th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https://www.healthcare.gov/medicaid-chip/childrens-health-insurance-program>
- ▶ 미국 보건복지부, <https://www.hhs.gov>

# 핀란드의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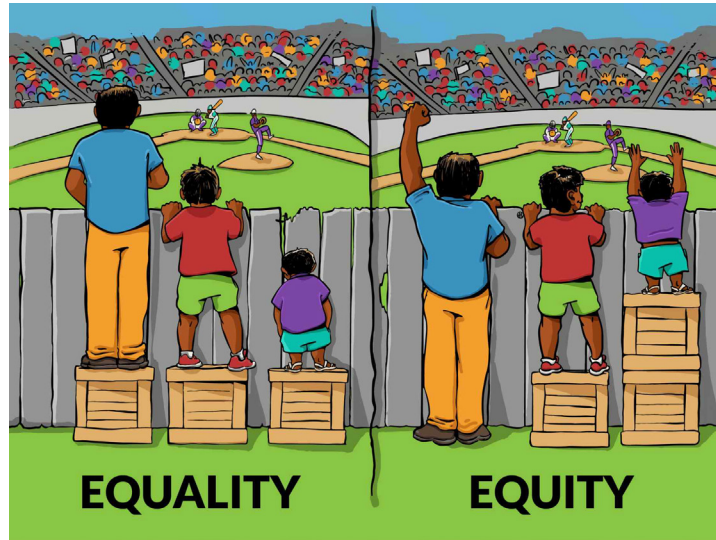
발간위원 : 최휘도(아천초등학교 교사)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이란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들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학생 복지’와 그리고 모든 학생이 상황에 맞게 유의미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교육 평등’의 개념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평등과 복지는 비단 핀란드 교육뿐만 아니라 핀란드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핀란드 교육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의 복지와 평등 실현을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기사에서는 핀란드가 교육 평등과 학생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어떤 원칙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1.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에 대한 핀란드 교육의 관점: 형평성으로의 교육 평등

앞서 밝히 바와 같이 핀란드 교육에서 이뤄지는 학생 지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핀란드 교육의 학생 복지 나아가 핀란드 사회가 추구하는 교육적 평등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핀란드 교육 당국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학생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학생 복지) 이를 통해 교육적 평등과 사회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핀란드 교육에서의 평등은 단순히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이 추구하는 평등은 ‘Equality(균등성)’가 아닌 ‘Equity(형평성)’이다. 즉,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처한 상황과 필요를 파악하고 개별적이고 알맞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교육 과정과

결과에서의 평등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핀란드 교육이 추구하는 **형평성으로서의 교육의 평등**이다. 따라서 핀란드 교육이 이루고자 하는 **형평성으로서의 교육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필요를 파악하고 알맞은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sup>1)</sup>



[그림 1] ‘Equality(균등성으로서 평등)’와 ‘Equity(형평성으로서의 평등)’<sup>2)</sup>

## 2.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의 원칙

그렇다면 핀란드 교육에서는 **형평성으로서의 교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학생 지원을 제공하고 있을까? 핀란드 교육 당국의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포용성: 보편적 복지의 제공

핀란드 교육의 핵심은 포용성이다. 즉, **핀란드 교육은 모든 학생이 지역, 사회적 배경, 경제적 지위, 보호자의 능력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핀란드 교육 당국과 지자체는 학생들에게 급식, 학습 도구, 교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통학을 위한 교통편까지 무료로 지원하며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핀란드 교육 당국은 일찍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양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학습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sup>3)</sup> 이와 같은 포용성의 개념은 장애 및 난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방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장애 학생과 난민 학생을 구분하여 학습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대한 일반 학급에서 통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1) 최희도(2021), 교육의 결과적 평등에 관한 연구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949816096](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949816096)

2) 이미지 출처: <https://interactioninstitute.org/illustrating-equality-vs-equity/>

3)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2024), 핀란드의 학생 돌봄 교육 <https://www.gbe.kr/gber/na/ntt/selectNttInfo.do?mi=18906&bbsId=5117&nttSn=1419965>

## 2) 개별화된 지원의 제공: 3단계 지원

핀란드 교육은 보편적 복지 제공과 함께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완성하고자 한다. 그들은 ‘**긍정적 차별화(positive differentiation)**’라는 용어로 자신들의 개별화 지원을 설명하고 있다. 긍정적 차별화란 각 학생의 학습과 웰빙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학생의 필요에 맞게 개별화된 학습 목표, 과제, 교육 자료 그리고 교사 및 교육 공동체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핀란드 교육 당국은 이와 같은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각 학생의 고유한 강점 살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이와 같은 개별화 지원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핀란드 교육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3단계 지원 과정**’이다. 3단계 지원 과정이란 지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학생에게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 지원, 심화 지원, 특별 지원으로 구분된다.

<표 1> 3단계 지원 과정

지원 수준	내용
일반 지원	- 경미한 학습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학습 과정에서 이뤄지는 즉각적인 지원 - 보충 교육, 특별 지원 교육 등 제공
심화 지원	- 교사, 학부모, 기타 전문가와 협력 - 일반 지원 보다 더욱 정기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 보충 교육, 특별 지원 교육, 개별화된 학습 계획
특별 지원	- 학생 복지 기관에 도움 요청 - 장기적인 지원 계획 - 보충 교육, 특별 지원 교육, 개별화된 지도 학습 계획, 기본 교육의 연장 및 연기 등

## 3) 협력을 통한 지원: 학생 복지 기구(student welfare body)

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교육 당사자들이 협력할 때 학생에게 유의미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핀란드의 각 학교에는 학생 복지와 지원을 책임지는 **학생 복지 기구**가 지정되어 있다. 이 기구는 보충 교육 및 특수 교육 자원, 상담, 치료, 복지 등이 학생의 필요에 따라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학생 지원을 보조한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학교의 경우 학생 복지 기구에는 일반적으로 교장, 특수 교육 교사, 학교 심리 상담가, 보건 교사, 사회 복지사 등이 포함된다. 학생 복지 기구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학생 지원을 위한 일반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도움이 필요한 교사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며, 개별 학생 지원의 경우는 학부모 및 학생과 협력하여 해당 학생을 위한 개별 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이뿐만 아니라 예방적 지원과 조기 개입 또한 핀란드 학생 지원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3.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의 적용

핀란드 교육 당국은 앞서 확인한 지원 원칙에 따라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 지원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경우를 확인한다면 핀란드 교육 현장에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1) 장애 학생

핀란드에서 장애 아동은 초중등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핀란드 교육 당국은 장애 학생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 내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포괄적이고 질 높은 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2015년 개정된 차별금지법에 따라 교육 제공자와 교육 기관은 학생들에게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에서의 합리적 편의 제공이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입학, 학업 수행, 학업 완료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접근성은 장애 학생의 독립적인 생활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온전한 참여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전통적으로 접근성은 물리적 환경 구축에 있어 장애 학생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최근 핀란드는 접근성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접근성을 지원하고 있다. 즉, 그들은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행동할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된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일반 학생들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핀란드에서는 포용적 교육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장애 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학생들에게 학업과 관련된 이동 서비스, 공공 자금 지원을 받는 개인 비서, 통역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 교육 당국은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이 고등학교, 직업학교는 물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운영 체계와 법률 시스템을 정비하여 고등 교육 단계에서도 장애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복지가 보장되도록 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교육 기술을 활용한 지원을 중요한 방안으로 삼고 있으며, 장애 학생들이 원활히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의 설계, 개발,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 시 장애 학생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이주 배경 학생(이민 학생, 다문화 학생, 난민 학생)

핀란드 정부는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을 위한 학습과 학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혁은 평등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의무교육 확대, 진로 상담 개발, 지속 학습 체계에서의 사전 학습 인정, 소외 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이주 배경 학생들이 학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습 경로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지원 요구는 다양하다. 일부는 핀란드어를 빠르게 학습한 후 원어민 학생들과 함께 학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지만, **많은 학생이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학생이 핀란드에 도착한 나이에 따라 교육적 요구와 학업 성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늦은 나이에 핀란드로 이주한 학생들은 종합학교 마지막 단계에서 언어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언어 교육은 이주 학생이 핀란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이를 위해 핀란드 교육 당국은 핀란드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기 위한 학습 경로 개발이 모든 교육 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긍정적 차별 재정 지원이 지속되고 언어 민감성을 고려한 교수 및 의사소통 방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 지원은 학습 전환점을 성공적으로 넘기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핀란드는 학습 단계별로 이주 배경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유아 및 입학 전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언어 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핀란드 당국은 보호자 부담금을 줄이며, 장기적으로 최소 하루 4시간의 무료 교육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이주 가정의 어린이들이 조기에 교육에 참여하고 언어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문해력과 수리력 등 기본 학습 능력을 제공하며, 이주 배경 학생들의 언어적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습 권리 개발 프로그램은 특히 새로 도착한 학생들의 언어 및 학습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환기 교육의 강조를 통해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 그리고 직업교육 또는 일반 고등학교로 원활히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이주 배경 학생들의 높은 중퇴율을 해결하기 위해 교수, 상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직업 교육 및 훈련의 개별화를 통해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육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이민자를 위한 준비 교육을 법률에 추가하여 고등 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이주 배경 학생들이 학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핀란드의 이와 같은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은 이들의 학습 및 공정한 학습 경로를 지원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은 이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우며, 궁극적으로 이주 배경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핀란드 사회와 노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4. 맺음말

핀란드의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은 단순히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도움을 넘어, 모든 학생이 처한 상황과 요구를 존중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필요를 중심에 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 과정과 결과에서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교육적 평등을 추구하려는 핀란드의 교육 철학**을 잘 보여준다.

특히 핀란드는 장애 학생과 이주 배경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학업적 성취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이 학교를 넘어 사회에서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핀란드 교육 당국은 **교육 정책과 법률, 재정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

결국 핀란드의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은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주체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핀란드가 세계 교육의 선두주자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며, 다른 국가가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핀란드의 맞춤형 학생 통합 지원을 우리 교육에 적용하기 앞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와 같은 핀란드 교육의 학생 복지 및 지원 정책은 교육적 평등이 곧 사회 발전의 초석이라고 믿는 핀란드 사회의 광범위한 합의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핀란드의 학생 지원 정책을 비판 없이 수용하기보다는, 핀란드 사회와 우리 사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핀란드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고 이를 우리 사회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도 모든 학생이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 받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자료】

-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Pupil and student welfare  
<https://okm.fi/en/pupil-and-student-welfare>
- ▶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upport to learning and pupil welfare system  
<https://www.oph.fi/en/education-and-qualifications/support-learning-and-pupil-welfare-system>
- ▶ Eurydice, Educational support and guidance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finland/special-education-needs-provision-within-mainstream-education>
- ▶ Finnish Government(2021), Education Policy Report of the Finnish Government  
[https://planipolis.iiep.unesco.org/sites/default/files/ressources/finland\\_education\\_policy\\_report\\_of\\_the\\_finnish\\_government\\_2021\\_eng.pdf](https://planipolis.iiep.unesco.org/sites/default/files/ressources/finland_education_policy_report_of_the_finnish_government_2021_eng.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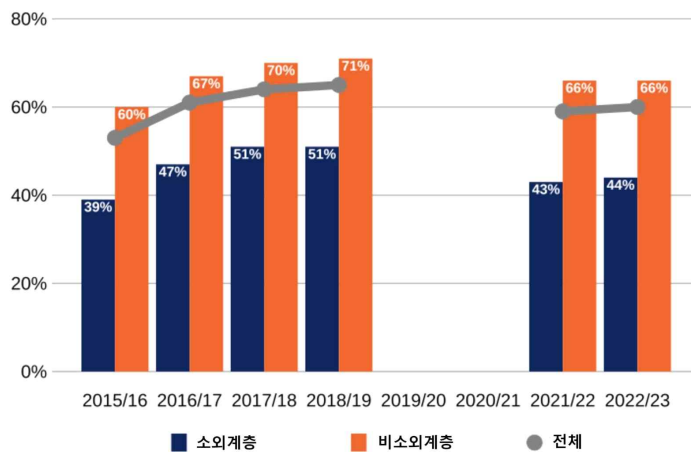
# 영국의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발간위원 : 김영주(오테중학교 교사)

2010년 영국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국가 구성원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여러 평등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포괄적 차별금지 법률인 '평등법 2010'(Equality Act 2010)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나이, 장애, 성전환, 임신,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결혼 및 시민 파트너십으로 인한 차별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평등법 2010의 영향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법 제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소외 계층이나 취약 계층 학생의 교육 기회균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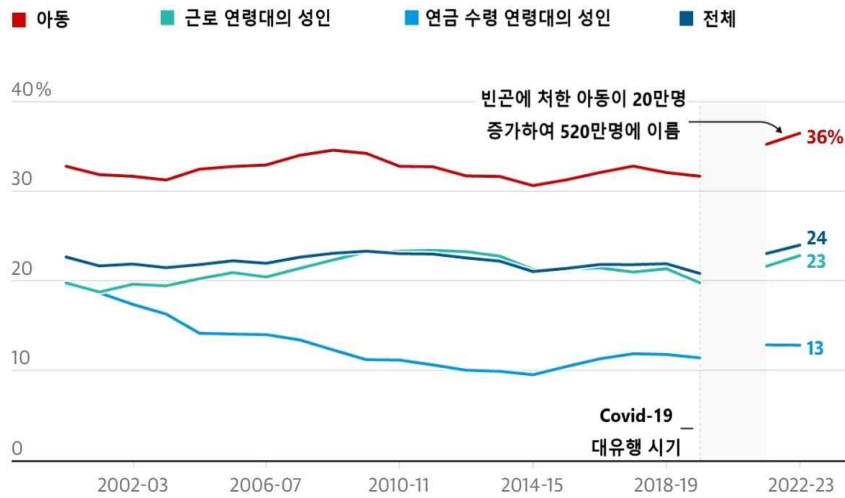
[영국 계층별 학생들의 읽기, 쓰기, 수학 과목에서의 기대 기준 도달 비율]



## 1.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최근 영국 정부의 측정 기준을 활용한 사회 지표 위원회(SMC)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영국 학생의 약 36%인 520만 명의 아동이 빈곤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 수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각 정부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의 연령대별 빈곤율]



<출처: The Guardian>

가. 저소득층 학생 지원금

1) 잉글랜드의 학생 지원금(Pupil Premium)

학생 지원금(Pupil Premium)은 잉글랜드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2011년 4월에 도입된 추가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대상 학생은 무료 학교급식 대상 학생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국가 보호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거나 보호받았던 학생으로, 이들에게 지원금이 학교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된다.

2023/24학년도에 학교에 지급된 총 학생 지원금은 29억 파운드(한화 약 5.1조원)이며, 학생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은 1,035파운드(한화 약 182만원)에서 2,530파운드(한화 약 445만원)에 이른다. 학교는 이 지원금을 개인교습, 멘토링, 학습 자원 및 프로그램 등 소외 계층 학생들의 교육 성취를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하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학교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Oxspring 초등학교 학생 지원금 홍보자료]



2) 스코틀랜드 성취 도전(Scottish Attainment Challenge)

스코틀랜드 성취 도전(Scottish Attainment Challenge)은 2015년에 스코틀랜드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된 지원 정책이다. 이 정책에 따라 각 학교에는 학생 평등 자금(Pupil Equity Funding)이 배부되며,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략적 평등

---

기금(Strategic Equity Funding)이 배분된다. 2021/22학년도부터 2025/26학년도까지 총 10억 파운드가 지원되며, 전체 97%의 학교에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 3) 웨일즈 학생 발전 보조금(Pupil Development Grant)

웨일즈 정부는 아동 빈곤 전략(Child Poverty Strategy)에 따라 학생 발전 보조금(Pupil Development Grant)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선정 방법은 잉글랜드와 유사하지만, 이 보조금은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저소득층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수준 높은 학습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중심 학교 개발에 집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 4) 북아일랜드 RAISE 프로그램

북아일랜드의 RAISE 프로그램은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AISE 프로그램은 교육 불평등이 심각한 소외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학교와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도록 돕고 있다. 북아일랜드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RAISE 프로그램에 2천만 파운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 나. 무료 학교급식(Free School Meal)

영국의 무료 학교급식(Free School Meal) 제도는 학생들의 영양을 보장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잉글랜드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전체에게 무료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모든 초등학교 학생에게 P5학년(만 9~10세)까지 무료 급식이 제공되며, 그 이후에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지원된다. 웨일즈에서는 아동 빈곤 전략(Child Poverty Strategy)에 따라 공립 학교에 다니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료 학교 점심이 제공된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만 무료 급식이 제공된다.

### 다. 교육 유지 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교육 유지 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은 16세에서 19세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적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은 주당 최대 30파운드에서 40 파운드까지 학생에게 직접 지원된다.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며, 잉글랜드에서는 2011년에 이 제도가 종료되었다.

### 라. 교육 투자 지역(Education Investment Areas) 지원

영국의 교육 투자 지역(EIA, Education Investment Areas) 정책은 출석률, 학생 참여 및 학업 성취도가 낮고 저소득층 가정 비율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영국 교육부는 2021년에 이 정책을 도입하여 총 55개의 지역을 선정하였고, 이 중 우선 교육 투자 지역(PEIA)에 2025년 3월까지 최대 4200만 파운드(한화 약 731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정책은 2030년까지 Key Stage 2단계(우리나라의 초등학교 6학년)까지 90%의 학생들이 읽기, 쓰기, 수학의 기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Key Stage 4단계(우리나라의 고등학교 2학년)까지 영어와 수학 과목에서 GCSE 평점을 4.5점에서 5점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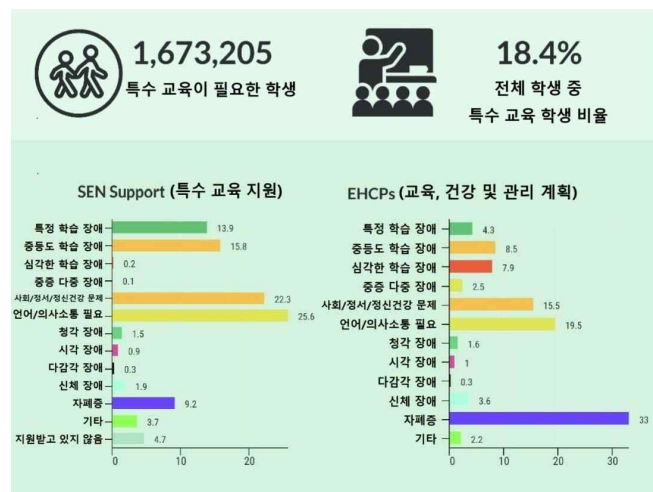
### 2. 특수 교육 및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영국의 특수 교육 필요 및 장애(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 SEND) 프로그램은 2014년 아동 및 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장애가 있는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이 교육적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교육 지원, 심리 지원, 그리고 사회적 기술 개발을 돕는 사회적 지원이 포함된다.

교육, 건강 및 관리 계획(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 EHCP)은 교육, 건강 및 사회적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로 장애 아동이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제공된다. 이 계획에 따라 보조교사, 언어 치료 등 특수 치료, 사회적 기술 훈련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영국의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은 약 167만 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18.4%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 교육 지원 중에서는 언어와 의사소통에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약 26%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건강 및 관리 계획 프로그램(EHCP)에서는 자폐 학생의 수가 33%로 가장 많았다.

[영국 학교에서의 특수 교육 대상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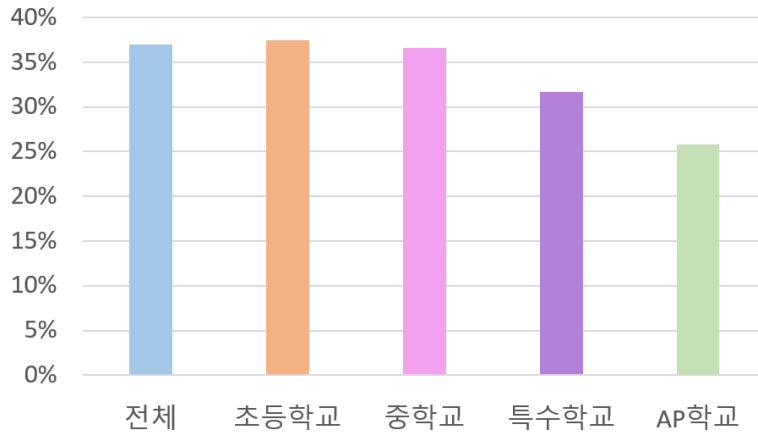
<출처: ASCL Council>

### 3. 소수 민족 학생을 위한 영어 학습 지원 프로그램

영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24학년도 학교, 학생 및 특성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전체 취학 연령 학생 중 백인 영국인을 제외한 소수 인종 학생의 비율은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37%로 나타났으며,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23학년도 취학 연령 학생 중 소수 인종 비율]



<출처: 영국 교육부>

영국에서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은 추가 언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EAL)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외국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업 성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영어를 효과적으로 배우고, 학업 성취를 높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arehills 초등학교의 EAL 프로그램]



[Harehills 초등학교의 젊은 통역사]



영국의 Harehills 초등학교는 전교생 700명 중 약 500명 이상이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약 22개 이상의 소수 인종이 약 45개의 서로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교이다. Harehills 초등학교는 벨 언어 능력 척도(Bells Proficiency Scale)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전략을 제공하며 수업은 소규모 연령대 그룹으로 진행된다. 또한, Harehills 초등학교에서는 ‘젊은 통역사 제도(Young Interpreter Scheme)’를 통해 5~6학년 학생 중 영어에 능숙한 소수 인종 학생을 통역사로 활용하고 있다.

#### 4. 맺음말

영국에서는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평등법 2010의 제정 이후, 저소득층 학생, 장애 학생, 소수 민족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교육 불평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소득 학생의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 제도, 무료 학교급식, 교육 유지 수당, 교육 투자 지역 등은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 학생을 위한 SEND 프로그램과 EHCP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이 교육적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소수 민족 학생을 위한 EAL 프로그램은 영어 학습을 지원하며,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참고 자료】

- Education Policy Institute

<https://epi.org.uk/>

-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4/nov/18/more-than-one-in-three-uk-children-poverty-deprivation-record-high>

- Pupil premium: overview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upil-premium/pupil-premium>

- What EMA is

<https://www.mygov.scot/ema>

- Education investment area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ducation-investment-areas/education-investment-areas>

-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 (SEND)

<https://www.gov.uk/children-with-special-educational-nee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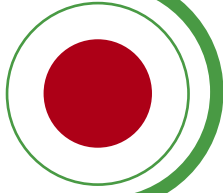
- Schools, pupils and their characteristics, 2023/24

<https://explore-education-statistics.service.gov.uk/find-statistics/school-pupils-and-their-characteristics/2023-24>

- Harehills Primary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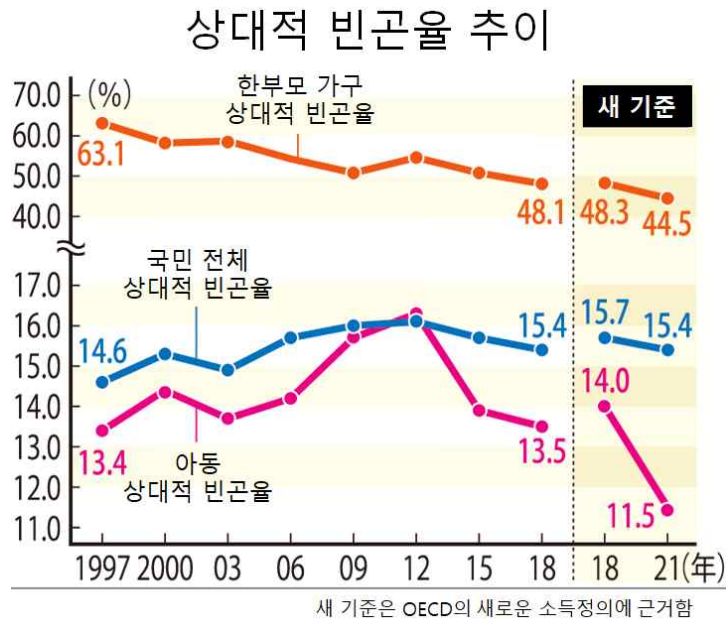
<https://harehills.leeds.sch.uk/>

# 일본의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발간위원: 최광현 (길안초등학교 교사)

## 1. 저소득층 학생 (빈곤 아동)



[그림 1] 상대적 빈곤율 추이 (출처: 아동가정청)

후생노동성 조사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일본의 17세 이하 아동 빈곤율은 11.5%로, 약 8.7명의 아동 중 1명이 빈곤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한다. 이렇듯 ‘상대적 빈곤’<sup>4)</sup> 상태에 놓인 아동들은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생활 환경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데, 그 결과 아동 빈곤은 세대를 이어 대물림될 확률이 높다. 부모의 낮은 수입은 자녀의 교육 기회 부족 및 고등교육에의 진학 포기로 이어져 결국 취업 곤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4) 상대적 빈곤: 해당 국가 소득의 중앙값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현재 일본의 경제나 생활 수준에 있어서 대다수의 세대에 비해 가난한 상태를 의미함

사실 일본의 ‘아동 빈곤’ 현상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부모 또는 아동 본인이 가난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일본인의 특성상 주위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느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최대한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아동 빈곤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법 개정

아동의 빈곤 해소를 위한 대책은 교육의 지원,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원, 보호자에 대한 직업생활의 안정과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업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의 시책을 빈곤에 의해 아동이 그 권리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아동 및 그 가족의 생활 및 둘러싼 환경 상황에 따라 조기에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동 빈곤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법 제3조 기본이념 중-

일본에서는 2013년 제정된 「아동 빈곤 대책 추진법」에 대한 개정안이 2024년 6월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아동 빈곤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법」이 시행되었다. 해당 법안은 법의 명칭을 포함한 모든 법문에서 ‘아동 빈곤 해소’가 명시되는 등 「아동 빈곤 대책 추진법」에 비해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수급액’을 아동 빈곤에 관한 지표에 추가하고, 한부모 가정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구를 현 30%에서 2031년까지 40%까지 확대하는 등 아동 빈곤 해소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림 2] 개정 아동 빈곤 대책 추진법 가결 모습 (출처: 참의원 심의 중계 방송)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생활 및 육아에서의 비용 지원	
아동수당 (아동가정청)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급하는 수당

아동부양수당· 한부모가정 복지자금 대출금 (아동가정청)	한부모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b>교육비 지원</b>	
유아 교육 및 보육의 무료화 (문부과학성)	3세~5세 어린이 및 0세~2세의 주민세 면제 가정 어린이 대상 유치원, 보육원, 인정 아동 센터 등의 이용 무료
학교 출석 보조 제도 (문부과학성)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용품비 및 급식비 등을 지원
고등학생 등 취학지원금 제도 (문부과학성)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대해 고등학교 등록금 및 기타 교육비를 지원
고등학교 졸업시험 합격 지원 (아동가정청)	한부모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시험 대비 강좌를 수강하는데 소요되는 수강비를 지원
<b>취업 및 생활 상담</b>	
저소득층 자립지원제도 (후생노동성)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거나, 살 곳이 없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곤란한 가정에 대한 상담 창구
미혼모 가정을 위한 취업 자립 지원 센터 (아동가정청)	한부모를 위한 취업 지원과 아동 양육비 마련에 관한 상담을 실시
아동 학습·생활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자립 지원 전국 네트워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학습 지원, 생활 및 진학을 위한 상담 지원

### (3) 킷카케(きっかけ) 프로그램

일본어로 ‘동기’, ‘계기’라는 뜻을 가진 ‘きっかけ(킷카케)’에서 알 수 있듯, ‘킷카케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무상 온라인 학습을 제공하는 소외 계층 대상 프로그램이다. 2020년 비영리단체인 ‘카타리바’에서 시작한 해당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무상으로 배부하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자료와 온라인 영어 회화 프로그램 등 디지털 학습 도구를 이용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멘토와 학생(멘티) 간 온라인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구의 85%가 한부모 가정임을 고려해 멘토는 월 1회 부모와의 온라인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 상담 내용은 자녀 양육을 포함한 부모의 고민부터 교육 관련 정보 제공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킷카케 프로그램은 우와지마시를 포함한 에히메현의 2개 도시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소외 계층 대상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상대적 학습 결손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 2. 장애학생

### (1) 특수교육 취학 장려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특수학교 또는 초·중학교의 특수학급 등에 배치되었을 때, 그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는 교육 경비에 대해서, 가정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보조하는 정책이다. 게다가 2013년부터는 일반학급에 배치된 완전통합학급 학생도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 사실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유형은 상관없게 되었다.

특수교육 취학 장려비는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1단계(소득이 생활보호기준의 1.5배 미만이거나 생활보호가구, 이에 준하는 가구)는 전액 지원을 받고, 2단계(소득이 생활보호기준의 1.5배에서 2.5배)는 반값 지원을 받으며, 3단계(소득이 생활보호기준의 2.5배 이상)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참고로 특수교육 취학 장려비에 의해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그 가정에게 지원되는 경비에는 통학비, 급식비, 교과서비, 학용품비, 수학 여행비, 기숙사 물품비, 침구류비 등이 포함된다.

### (2) 배리어프리

일본에서는 장애 여부를 떠나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재해가 많은 일본의 특성상 학교가 지역 주민들의 피난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에서의 배리어프리(무장애)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20년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통칭 ‘배리어프리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때 배리어프리법 상의 ‘특별 특정 건축물’에 공립 초·중학교 등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공립 초·중학교는 배리어프리 기준에 대한 적합이 의무화되었고, 이전에 설립된 초·중학교 건축물에 대해서도 배리어프리 기준에 대한 적합 노력 의무가 부과되었다.

대상		2020년	2022년	2025년 말까지의 목표	
배리어프리 화장실	학교건물	65.2%	70.4%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학교 정비 (2022년 조사 시, 전체 학교 수의 약 93%가 해당)	
	실내운동장	36.9%	41.9%		
경사로 등에 의한 단차해소	문에서 건물 앞까지	학교건물	78.5%	모든 학교를 정비	
		실내운동장	74.4%		77.9%
	승강기 및 현관 등에서 교실까지	학교건물	57.3%		61.1%
		실내운동장	57.0%		62.1%
엘리베이터	학교건물	27.1%	29.0%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재적하고 있는 모든 학교 정비 (2022년 조사 시, 전체 학교 수의 약 41%가 해당)	
	실내운동장	65.9%	70.5%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재적하고 있는 모든 학교 정비 (2022년 조사 시, 전체 학교 수의 약 76%가 해당)	

[그림 3] 배리어프리 설치 실태조사 (출처: 문부과학성)

### 3. 난민 학생

일본은 2010년부터 ‘재정착 난민(제3국 정주)’이라는 제도를 통해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는 난민들이 처음 보호를 요청했던 국가에서 그들을 정착민으로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제3국으로 이동해 재정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그 대상자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일본은 해당 제도를 통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94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비록 난민 인정 신청 결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인도주의적 배려를 이유로 재류를 허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라 2021년에만 총 580명이 일본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림 4] 난민 정착자 일본어 학습지원 일본어 교재 가이드북 (출처: 난민 사업 본부)

이렇듯 점차 난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난민 사업 본부(RHQ)에서는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난민 정착자(인도차이나 난민 및 조약 난민, 또는 그 가족, 재정착 난민 등)를 대상으로 한 정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어 학습지원을 포함한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5]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 참가 모습 (출처: 난민 사업 본부)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은 재정착 난민들이 일본에서 독립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RHQ 지원 센터에서 6개월간 일본어 학습 및 생활 지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실제 어린이집에 등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생활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부모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상담을 하기도 한다. 학령기 아동에게는 거주지 학교로의 전학을 전제로 매일 지원 센터 내 교실에서 일본어와 수학 등의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원활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 4. 맺음말

일본 정부는 2015년부터 ‘아동의 미래를 응원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 NPO 단체와 연계해 생활 및 학업에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생활 및 학업에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외에도 그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풀뿌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 미래 응원 기금’을 만들어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고 있으며, 해당 기부금을 이용해 NPO 단체들이 풀뿌리 지원을 적재적소에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은 각기 다른 사정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 및 가정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NPO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연계해 협력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걷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참고 자료】

- ▶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a\\_menu/shotou/tokubetu/002.htm](https://www.mext.go.jp/a_menu/shotou/tokubetu/002.htm)
- ▶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a\\_menu/shisetu/seibi/mext\\_00003.html](https://www.mext.go.jp/a_menu/shisetu/seibi/mext_00003.html)
- ▶ 法務省, <https://www.moj.go.jp/isa/content/001372237.pdf>
- ▶ こども家庭庁, <https://kodomohinkon.go.jp/help/area/>
- ▶ 難民事業本部, <https://www.rhq.gr.jp/>
- ▶ 認定NPO法人カタリバ, <https://www.katariba.or.jp/>
- ▶ 政府広報オンライン, <https://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2303/3.html>
- ▶ e-GOV 法令検索, <https://laws.e-gov.go.jp/law/425AC1000000064>

# 캐나다의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발간위원 : 허미연(삼성현중학교 교사)

## 1. 캐나다 난민 제도

캐나다의 난민 제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캐나다 외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난민 및 인도주의적 재정착 프로그램(Overseas Resettlement Program) △캐나다 내에서 난민 보호를 청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캐나다 망명 프로그램(In-Canada Asylum Syste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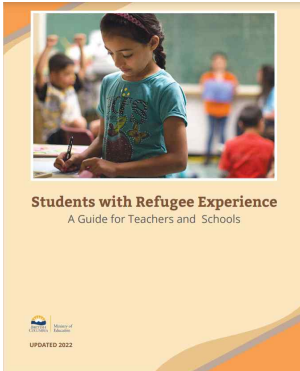
### 가. 난민 및 인도주의적 재정착 프로그램

재정착 난민은 이미 국경을 넘었거나 UN에 의해 난민으로 확인되었거나, 호스트 국가는 해외에 있으며 나중에 재정착한 개인들(2016년 시리아 난민)을 말한다. 재정착 난민은 해외에서 심사를 받고, 캐나다에 오기 위해 비자 발급 전 보안 및 의료 점검을 받아야 한다. 재정착 난민이 캐나다에 도착하면 영주권자로, 즉시 캐나다 정부나 입국 첫째 동안 사전에 지원을 제공하는 민간 단체나 커뮤니티 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는다.

### 나. 캐나다 내 망명 프로그램

캐나다 내 망명 프로그램은 캐나다 국경에 도착했거나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본국에서 고문,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난민 보호를 제공한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서 일시적인 신분을 갖는다. 난민 신청자는 캐나다에서 난민 청구가 승인된 경우에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2. 난민 학생 지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난민 학생을 ‘난민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난민 신청자이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거주하는 학령기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립학교에 등록된 학령기 학생은 공립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영어 학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난민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를 위한 지침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했다.

### 가. 교사의 지원

난민 학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사가 지원할 수 있다.

- 학교 제도를 점진적으로 소개
- 지도와 같은 시각적인 자료의 도움을 받아 학교와 운동장 투어 제공
- 학생의 모국어로 된 접근 가능한 학교 정보 제공
- 주변 지역에 대한 소개와 지도 제공
- 최초 연락 시 통역사 사용 고려
- 부모와 형제자매 파악
-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었는지 확인
- 새로운 학생을 위해 버디 제공
- 가능하다면 학생의 교사 수 최소화
- 지정된 사물함 또는 수납공간 제공
- 가능하다면 적어도 한 가지 상황에서 더 작은 규모의 학급 제공
- 학생들에게 학교 행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적절한 행동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 사용

난민 학생의 학부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교사가 지원할 수 있다.

- 학부모에게 담임교사, 정착 복지사, 다문화 복지사, 교장을 소개
- 유용한 학교 및 지역 사회 정보를 바탕으로 학부모를 위한 모국어 포럼 계획
- 학부모의 모국어로 된 정보를 포함하여 문화 및 학교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 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의 지원

사회와 학교 적응	물리적 도움	교사를 위한 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할당과 배치</li> <li>□ 담임교사 소개</li> <li>□ 학교와 교실 배치 소개</li> <li>□ 멘토 또는 버디 지정</li> <li>□ 필요한 경우 언어 지원</li> <li>□ 일관된 루틴 또는 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용품, 교과서, 자료</li> <li>□ 점심과 간식</li> <li>□ 타종에 대한 소개</li> <li>□ 조용한 지역이나 피난처로의 접근</li> <li>□ 청각 및 시력과 같은 의학적 필요 사항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 배경에 친숙하기</li> <li>□ 천천히 말하기</li> <li>□ 비언어적 신호에 주목</li> <li>□ 예의와 반응의 문화적 차이 알기</li> <li>□ 성별과 관련된 다른 문화적 규범 고려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에 필수적인 교육 배경 평가</li> <li>□ 사전 읽기 및 수리 교육의 필요성 평가</li> <li>□ 학습 장애 판단</li> <li>□ 반복해서 말하고,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지시 사용</li> </ul>

### 다. 정서적 고려 사항

난민 경험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새로운 학교 기반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이나 트라우마를 떠올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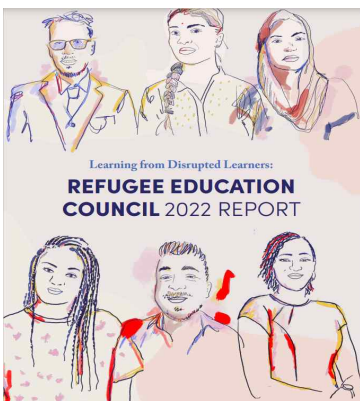
- 어두운 복도
- 지진 훈련 또는 대피 절차
-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학교에 오거나 학교에 있는 경우
- 큰 소리로 말하는 학생들
- 부츠 같은 발자국 소리/ 종소리
- 말썽을 피우는 것처럼 통제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
- 거친 언어/ 오해될 수 있는 신체 언어
- 다른 친구들이 그들을 쳐다보는 상황
-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사용하는 영어 또는 일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 마스크나 폭죽을 사용하는 할로윈 같은 익숙하지 않은 축제나 행사

원하지 않는 부정적 경험에 대응하거나 방지하는 방법은 예측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거나 다음 그림과 같은 완충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 3. 배움을 위한 동행(Together for Learning)

‘배움을 위한 동행(이하 Together for Learning)’은 △난민 △폭력, 자연재해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난 경우 △난민이나 실향민이 머물고 있는 호스트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3개년 캠페인이다.



[그림 1] 난민교육위원회 2022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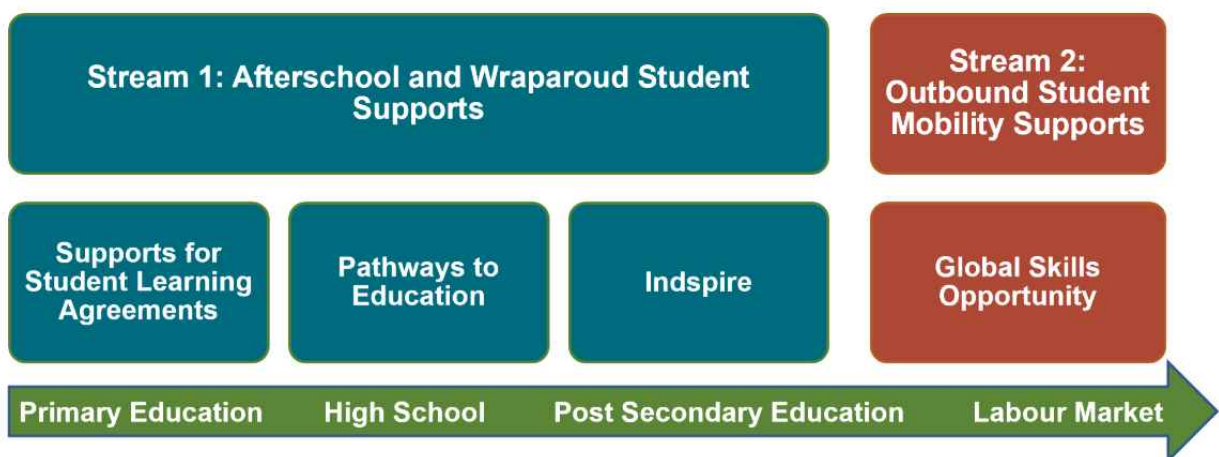
난민교육위원회(Refugee Education Council)는 난민 및 기타 강제 실향민 및 수용 지역 사회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캐나다의 국제 ‘배움을 위한 동행(Together for Learning)’ 캠페인의 일환으로 캐나다 국제 교육 정책 실무 그룹(Canadian International Education Policy Working Group)과 협력하여 2021년에 시작됐다. 난민교육위원회는 또한 월드비전 캐나다가 주관하는 자문 기구로 현재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및 남미 출신의 강제 이주 영향을 받은 15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 사회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G7 샤를부아 선언(Charlevoix Declaration)<sup>5)</sup>과 ‘Together for Learning’ 캠페인을 바탕으로 캐나다는 소녀, 난민, 실향민, 수용국 아동과 청소년 등 위기 상황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우선시했다. 2024년 아흐메드 후센(Ahmed Hussien) 국제개발부 장관은 난민교육위원회 2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3년간 45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4. 학생 학습 지원 프로그램(SSLP)

‘학생 학습 지원 프로그램(the Supports for Students Learning Program 이하, SSLP)’은 광범위한 청소년 지원 기관에 자금을 지원해 맞춤형 재정 및 비재정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 SSLP는 또한 모든 학생을 위한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둔다. 이를 위해 SSLP는 교육 자원과 지원 시스템에 동등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원주민 학생 △흑인 및 인종 차별을 받는 학생 △2SLGBTQ+로 식별되는 학생 △저소득 가정에 거주하는 학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학생 △농촌, 외딴 지역 및 북부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SSLP 자금 지원 프로젝트는 130,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지원했다.

SSLP는 △튜터링 세션 △멘토링 프로그램 △정신 및 사회 복지 서비스 △장학금 △캐나다 밖에서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는 기회 등과 같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학생 및 방과 후 지원 △해외 유학 및 근무 기회 두 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그림 2] 학생 학습 지원 프로그램(SSLP)의 구조

5) 샤를부아 선언은 2018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이 합의한 선언이다. 이 선언은 취약하고 위기 및 분쟁의 영향을 받는 위기에 처한 소녀, 청소년, 여성을 위해 양질의 교육과 기술의 훈련에 장벽을 제거해 소년과 남성이 받는 것과 동일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가. 학생 및 방과 후 지원

첫 번째는 ‘학생 및 방과 후 지원(Stream 1)’이다. 장벽에 직면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교육으로 전환해 삶과 노동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주정부와 지역의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 기관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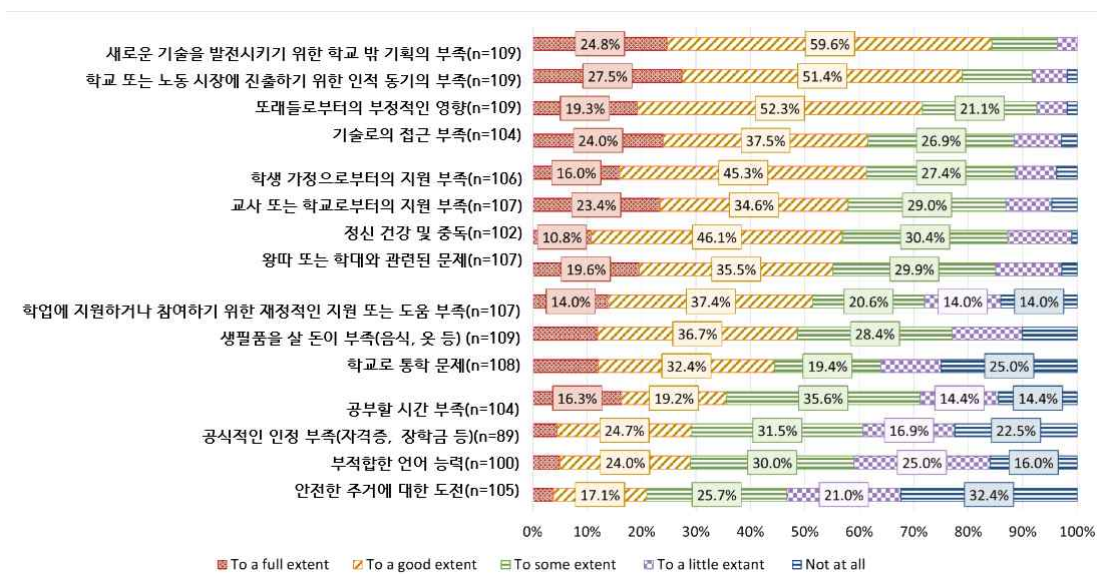
학생 및 방과 후 지원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매년 약 6,300 여명의 학생을 지원했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과 고등교육으로의 진학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온타리오 지역 참여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률이 평균 22,2% 더 높았고, 퀘벡 지역 참여자의 경우 비참여자에 비해 고교 졸업률이 37.6% 더 높았다.

또한 원주민, 이누이트, 메티스 청소년에게 2020~2022년에 약 4,300만 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장학금 수혜자의 75%가 정시에 대학 교육을 마쳤고, 88.4%가 예상 졸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졸업했다.

### 나. 해외 유학 및 근로 기회

두 번째는 ‘해외 유학 및 근로 기회(Stream 2)’이다. 캐나다의 단과대학 및 대학 학부생이 국내와 해외에서 국제 학습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SSLP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직접 지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지원 기관에 자금을 제공해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SSLP는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청소년 부문의 역량을 강화한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3,600명의 캐나다 학생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다. 또한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약 50개국의 고등교육 기관과 파트너십을 발전시켰다.

캐나다 정부는 2027년까지 SSLP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캐나다에서 교육의 성과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SSLP가 학생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정도

## 5. 다양한 학습 요구 사항 지원

캐나다 캘거리 교육위원회는 다양한 학습 요구 사항이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전문팀이 학생들의 고유한 학습 스타일을 지원하여 프로그램 계획을 개인화하고 지원한다.

### 가. 청각장애

청각장애 및 난청 수업은 언어 발달과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청력 상실이 있는 1~12학년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각/구두 접근 방식'은 청력 기술, 잔여 청력, 언어, 음성 판독, 서면 영어 및 시각 지원의 사용을 강조한다. 주요 목표는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자기주장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중 언어/영어 접근 방식'은 언어 학습을 위해 미국 수화 사용을 강조한다. 주요 목표는 영어 문해력 및 산수 능력과 함께 미국 수화에서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 나. 복잡한 학습 및 의료 요구 사항

학생의 장애 종류와 경중에 따라 △적응 학습 프로그램 △태도, 커뮤니티 역량, 학업 커리큘럼 요소, 사회적 기술 수업 △의사소통, 감각, 사회 기술 및 통합 수업 △강화된 교육 지원 수업 등이 지원된다.

## 6. 맺음말

캐나다는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해 난민 학생, 교육 소외 계층, 장애 학생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청은 난민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사,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각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 및 방과 후 지원과 해외 유학과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

### 【참고 자료】

- ▶ Calgary Board of Education, <https://buly.kr/4QmCLk7>
- ▶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https://buly.kr/8TpcpLm>
- ▶ Government of Canada, <https://buly.kr/4FrR55g>
- ▶ Government of Canada, <https://buly.kr/CB3XECX>
- ▶ Government of Canada, <https://buly.kr/H6gksqK>
- ▶ Students with Refugee Experience, <https://buly.kr/7mAaiov>

# 프랑스의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발간위원 : 이한길(포항제철초등학교 교사)

프랑스의 교육정책은 국가 이념인 공화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교육의 목표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프랑스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프랑스 교육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학업 성과를 넘어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그와 같은 지원 정책과 체계 및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우선교육정책(Politique de l'Éducation Prioritaire, REP)

### 가. 교육 취약 지역 선정

우선교육정책의 핵심은 취약 지역을 선정하여 자원과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지역 내 학업 성취가 낮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교육 자원을 할당한다. 선정 기준에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 사회적 배경, 교육 환경 등이 고려된다. 우선교육정책은 지역에 따라 다른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지역은 보통 도시 외곽, 저소득층 밀집 지역, 그리고 난민 및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 집중된다.

### 나.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우선교육정책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소시켜 교사의 개별적인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교사가 더 많은 시간을 각 학생에게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더 면밀히 파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고, 학습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다. 교사의 추가 지원

우선교육정책은 해당 지역의 교사들에게 추가적인 교육 훈련과 지원을 제공한다. 교사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 또한, 추가적인 자원과 지원이 투입되어,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다.

### 라. 난민과 취약계층 학생 포함

우선교육정책은 빈곤 계층뿐만 아니라 난민과 같은 취약계층 학생들도 포함한다. 난민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과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교육정책의 지원

을 통해 그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난민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다.

마. 관련 통계

프랑스 교육부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교육정책이 적용되는 학교는 약 1,000개 이상의 네트워크로, 20% 이상의 학생들이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REP+와 REP 네트워크에 속하는 학교들은 특별한 예산 지원과 교사 수 증가를 통해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어, REP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당 평균 17명으로 학급 크기를 줄였으며, 이는 교사의 개별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1]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까지의 우선교육정책에 입각한 지원 체계 (출처: <https://grand-quevilly.circonscription.ac-normandie.fr/spip.php?article312>)

2. 난민 학생 특별 지원(Unité Pédagogique pour Élèves Allophones Arrivants, UPE2A)

프랑스는 난민 학생들이 학교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UPE2A(Unité Pédagogique pour Élèves Allophones Arrivants)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언어 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이 학습 환경에 적응하고, 프랑스 학교 시스템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프랑스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교실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특히 난민 학생들에게 중요한데, 그들은 종종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가. 프랑스어 교육

UPE2A의 주요 목표는 프랑스어 교육이다. 난민 학생들이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수업은 학생들의 언어 수준에 맞춰 설계되며, 기초적인 문법부터

시작해 언어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킨다. 또한, 프랑스어 수업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하고 학교에서의 일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림2] 난민 지원 프로그램 구성원 (출처: <https://inspirelle.com/why-french-school-lunches-outshine-other-cafeterias/>)

#### 나. 개별 학습 지원

UPE2A는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개별 학습 지원을 통해 난민 학생들이 수학, 과학, 역사 등 다양한 과목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UPE2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듣기 전에 학습 준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언어 능력을 키우고, 어려운 과목을 배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익힌다.

#### 다. 학급 내 통합

UPE2A 프로그램은 일반 학급과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프랑스어 능력을 갖추게 되면, 점진적으로 일반 학급에서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통합은 난민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다른 학생들과의 사회적 교류를 촉진한다. 이를 통해 난민 학생들은 단순히 언어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프랑스 문화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다.

#### 라. REP와 UPE2A 통합 지원

난민 학생들은 우선교육정책(REP)의 혜택도 함께 받는다. REP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교육 자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난민 학생들이 이 시스템 내에서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UPE2A와 REP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난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마. 프로그램 성과

프랑스 교육부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UPE2A 프로그램은 약 40,000명의 학생에게 지원

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난민 학생들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적응을 돕고 있다. 프랑스어 능력 향상과 함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적응력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바. 관련 통계

2020년 기준으로, 프랑스에는 약 30,000명 이상의 난민 학생들이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UPE2A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다. 교육부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UPE2A의 참여 학생들의 75% 이상이 일정 수준 이상의 언어 능력을 달성하고, 그 중 상당수가 일반 학급으로 통합되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 3. 특별 보조원(AESH - Accompagnants des Élèves en Situation de Handicap)

프랑스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특별 보조원(AESH)을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 AESH는 장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습에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은 장애 학생의 학습을 돕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AESH는 주로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보조와 개별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및 학업적 참여를 촉진한다.

#### 가. 개별화된 교육 계획

프랑스 교육부는 각 장애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개별화된 교육 계획(PPP - Projet Personnalisé de Scolarisation)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별 교육 계획은 학생의 장애 유형, 학습 속도, 수업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계된다. 장애 학생은 일반 학교에서 주로 통합 교육을 받으며, 교육 과정은 학생의 특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정된다.

#### 나. AESH의 역할

AESH는 장애 학생들이 교실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AESH는 학생의 이동을 돕고,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 학생이 학습 과제와 교사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은 학생에게 물리적, 감각적, 인지적 지원을 제공하여 학생이 교육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다. 장애 학생 교육의 성과와 도전

프랑스는 장애 학생들의 통합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장애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사회적 적응이 향상되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아 존중감을 키우고 사회성과 협동심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 학생들이 겪는 학습 격차와 개별화된 지원의 필요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라. 관련 통계

프랑스 교육부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약 380,000명의 장애 학생들이 프랑스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약 90%는 일반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통합 교육은

장애 학생들이 사회적, 정서적 발전을 이루고,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AESH의 배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약 100,000명의 AESH가 학교에 배치되어 장애 학생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AESH는 학생 수요에 맞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3] 장애 학생 지원 장면 (출처: <https://inspirelle.com/why-french-school-lunches-outshine-other-cafeterias/>)

#### 4. 초등학생 특별 지원 네트워크(Réseaux d'Aides Spécialisées aux Élèves en Difficulté, RASED)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 내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RASED는 주로 학업 성취가 저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의 학습과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특수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 네트워크는 심리학자, 특수 교육 교사, 언어 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 가. 지원 목적

RASED의 주요 목적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여 학업 성과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및 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종종 정서적 문제, 학습 장애, 언어 발달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RASED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에 맞춘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나. 지원 분야

RASED는 세 가지 주요 지원 분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심리적 지원으로, 심리학자가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정서적 문제나 학습 장애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두 번째는 특수 교육으로, 학습 지원 교사는 학생들이 읽기, 쓰기, 수학 등 기본적인 학습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세 번째는 언어 치료로, 언어 치료사가 언어 발달이 지연된 학생들에게 발음, 이해, 표현력 등을 개선하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한다.

#### 다. 운영 방식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특정 학교에서 발견되면, 학교의 교사는 해당 학생을 RASED 네트워크의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RASED 팀은 학생의 요구에 맞는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여 학생들이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중학교로도 확장될 수 있다. RASED의 지원은 단기적일 수도 있지만, 학생의 성과가 개선될 때까지 계속해서 제공된다.

#### 라. 프로그램 성과

RASED의 효과는 많은 연구와 보고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학습 성과도 향상된다. 또한, 정서적 및 사회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학교에서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 마. 관련 통계

RASED 네트워크는 프랑스의 모든 초등학교에 걸쳐 운영되며, 2020년 기준으로 약 30,000명의 학생들이 RASED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 네트워크의 구성원인 전문가들은 매년 수많은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 5. 맺음말

프랑스의 교육정책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교육정책(REP)은 취약 지역에 자원을 집중하고 학급 크기를 줄여 교사의 개별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학업 성취를 높이고, UPE2A 프로그램은 난민 학생들에게 언어 교육과 개별 학습 지원을 제공해 학교 적응을 도우며, RASED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에게 심리적, 특수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 학업 성취와 사회적 적응을 촉진한다.

#### 【 참고 자료 】

- ▶ [https://www.education.gouv.fr/l-education-prioritaire-3140?utm\\_source=chatgpt.com](https://www.education.gouv.fr/l-education-prioritaire-3140?utm_source=chatgpt.com)
- ▶ <https://www.education.gouv.fr/bo/12/Hebdo37/MENE1234231C.htm>
- ▶ <https://www.education.gouv.fr/les-accompagnants-des-eleves-en-situation-de-handicap-aesh-12188>
- ▶ <https://www.education.gouv.fr/bo/14/Hebdo31/MENE1418316C.htm>

# 호주의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발간위원 : 박진아(포항제철고등학교 교사)

## (1) 난민 학생 지원

호주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우크라이나에서 온 12,000명의 난민을 수용하여 호주의 난민 학생의 숫자가 상당히 증가했다.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NSW) 주 공립학교에는 난민 학생이 12,000명 이상 있으며 매년 약 1,800명의 새로운 난민 학생이 등록하고 있다. 이 학생들은 위험, 불확실성, 신체적 외상을 경험했으며, 정규 교육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어 모국어 문해력이 낮고, 복잡한 정서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 NSW 주 교육부는 난민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호주에 새로 도착한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교육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NSW 주와 인접한 빅토리아(Victoria, VIC) 주의 경우, 가장 큰 자산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내세우면서 학교는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 포용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문해력과 교육 이수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난민 학생 집단 내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는 NSW 주와 VIC 주가 난민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난민 학생 지원

NSW 주 교육부 웹사이트는 다문화 교육 메뉴 아래에 ‘난민 학생 지원(Supporting refugee students)’ 메뉴를 개설하고 학교 전체적인 접근법, 개인화된 학습, 고등교육 진로, 지역사회 연계, 정책 모형,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난민 배경 학생 지원 가이드(Supporting students from refugee backgrounds guide)’는 난민 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표 1>과 같이 상세하게 안내한다.

<표 1> NSW 주의 난민 학생 지원 가이드

영역	구체적 방안
오리엔테이션	가능하면 학생의 모국어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학교 일과, 관행, 기대 사항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환영 프로그램 제공하기, 학생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친구 프로그램 제공하기 등
학습 지원	집중 영어 프로그램, 이중 언어 학습 지원, 숙제 및 개별 멘토링, 또래 멘토링, 음악 치료 등 사회적 포용 프로그램, 취업 준비 프로그램(Ready Arrive Work), 학교 학습 지원 담당자 지원, 통역과 번역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전환기 지원, 직업 교육 또는 대학 교육 연계, 필요한 경우 평가 과제와 활동을 차별화하고 개별 학습 계획을 제공하기 등
정서적 웰빙 지원	회복하고 적응할 시간 주기, 트라우마의 영향 이해하기(분리 불안, 신뢰 관계 형성 더딤,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 잦은 결석 등), 학교 상담사의 도움을 제공하기, 필요하면 교육청의 난민 학생 상담 지원팀 등 전문 서비스를 연계하기, 치료를 위한 소규모 집단 활동 제공하기 등

NSW 주는 고문 및 트라우마 생존자 치료 및 재활 서비스(NSW Service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Torture and Trauma Survivors, STARTTS)라는 전문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STARTTS는 주 전역의 학교와 협력하여 난민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웰빙을 향상하기 위한 네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첫 번째는 학교 연계 프로그램이다. 공립, 사립, 가톨릭 학교가 협력하여 난민 학생들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적 연계를 촉진하는 활동이다. 두 번째는 전문 의료 서비스이다. STARTTS 소속 상담사는 학교나 STARTTS 치료소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놀이 치료, 모래상자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등을 제공한다. 혁신적인 치료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정글 트랙스(Jungle Tracks)는 이야기 치료를 활용하여 아동이 트라우마 경험을 극복하도록 돕는 활동이다. 세 번째는 집단 활동이며, STARTTS 소속 청소년 근로자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체육 활동, 무술, 청소년 캠프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전환 프로그램이 있다. 난민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면서 겪고 있는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워크숍이다.



[그림 1] STARTTS의 음악 치료 활동

## 나. 빅토리아(VIC) 주의 난민 학생 지원

VIC 주에서는 매년 6월에 난민 주간을 개최하는데 각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방과후 활동, 지역 연계 행사를 통해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난민 경험에 초점을 맞춘 예술 작품(시, 에세이, 미술 작품 등) 공유, 난민 여정을 조명하는 영화 동아리를 조직하거나 관련 영화 상영, 지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기념하는 행사 등이 열린다.

VIC 주의 비영리 단체인 고문 생존자를 위한 빅토리아주 재단(The Victorian Foundation for Survivors of Torture, 이하 재단)은 고문과 트라우마를 경험한 개인과 가족, 특히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이 호주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민 교육 지원 프로그램(Refugee Education Support Program)은 난민 학생의 참여도, 성취도,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찾고 구현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하는 학교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되고 그룹 내 학교는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2년 동안 서로의 실천 전략과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난민을 위해 나서는 학교(School’s In for Refugees)’는 단위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도구이다. 이 도구는 8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이며 난민 학생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난민 배경의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도서관 자료와 교수학습 자료의 문화적 편견 포함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을 묻는다. 설문 응답을 완료하면 학교의 강점과 개선 영역, 학교 전체의 행동 계획을 안내받게 된다.

이 외에도 재단은 통역사와 협력할 때의 가이드라인, 민감한 내용과 대화를 수업에서 관리하는 방법, 난민 배경 가정의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도록 돕는 방법, 학교 전체가 난민 학생과 가정을 환영하고 지원하는 방법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난민 학생을 환영하는 문화를 만든 모범 사례도 제공하는데, 한 예시로서 브레이브룩 학교(Braybrook College)의 다문화 교육 보조원(Multicultural Education Aides)들은 난민 및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 공간에서 학생들은 의견을 표현하고 교직원들과 소통하며 같은 뜻을 나누는 학생들과 결속력을 다진다. 기금 모금 행사를 하는 등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을 사려 깊게 대하는 관행을 실천하고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 (2) 학생 웰빙 지원

호주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정서적 그리고 학문적 회복력은 발달에 필수적이다. 학생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는 안전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고, 회복력을 장려하고, 자신감을 기르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총 3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호주 학생 복지

프레임워크(Wellbeing Framework)이다. 학교가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현재의 안전 및 복지 정책과 지원 요구 사항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적인 정책이다. 두 번째는 ‘비 유(Be You)’ 프로그램이며 이는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자들에게 지식, 도구,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정책은 국가적인 학생 웰빙 프로그램(The National Student Wellbeing Program)이다. 학생 복지 담당자, 종교 지도자, 학교 공동체가 협력하여 목회적 돌봄 제공, 교내 자원봉사 활동 조직, 또는 아침이나 점심 식사 동아리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교 전체의 복지를 지원한다.

# 뉴질랜드의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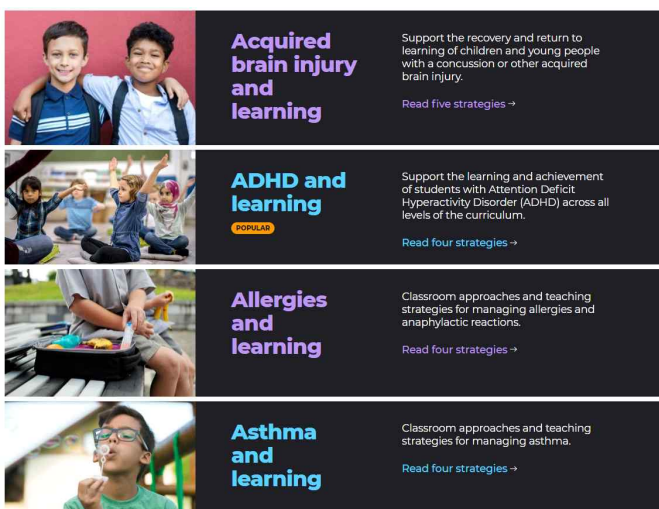


발간위원: 박진아(포항제철고등학교 교사)

## (1) 포용적인 교육(Inclusive Education)

‘와이탕이 조약(Waitangi Treaty)’은 1840년에 마오리족과 영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현재까지도 뉴질랜드의 문화적 상징이자 법적 토대로 작용한다. 이 조약의 핵심은 평등, 다양성, 정의이며, 뉴질랜드 교육부는 이러한 정신을 실현하고자 ‘포용적인 교육’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포용적인 교육은 모든 학생이 교육 기관에서 환영받고 교육 활동에 참여하며 배우고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습과 복지에 대한 장벽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학습 공간과 활동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방식도 포함한다. ‘포용적인 교육’ 웹사이트는 학습자의 유형과 요구 사항을 30개로 분류하고 각 집단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 학습자의 특성, 학습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회복과 학습 촉진을 돕기 위한 전략,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학습자의 유형으로는 후천적 뇌 손상, 주의

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ADHD), 알레르기, 천식, 자폐, 청각 장애, 다운증후군, 난독증, 저시력, 성소수자(LGTQIA+) 등이 있다.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 사항은 학습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 교육, 협력 학습 설계, 교육과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와 전략, 포용적인 학습 환경 조성,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 긍정적인 교우 관계, 전환기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포용적인 교육 가이드라인의 일부

## (2) 난민 학생 지원

뉴질랜드는 UN 할당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약 1,500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난민 배경 학생들의 교육 참여와 학업 성취를 돕기 위해 난민 자금(Refugee Flexible Funding Pool)을 마련하고 학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자금은 이중 언어 소통 담당 직원 고용, 중고등학생을 위한 숙제 프로그램, 학생들이 국가 교육 성취 인증 제도(NCEA) 자격을 취득하도록 돕는 문해력 및 수리력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를 위한 난민 핸드북(Refugee Handbook for Schools)’을 제작하여 학생 환영, 등록, 배치 및 모니터링,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제공, 이중 언어 지원 근로자 활용, 돌봄 제공, 전환기 지원, 위험에 처한 학생 파악과 관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고등교육위원회(The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도 난민 학생이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난민 배경 고등교육 학습자 지원 가이드라인(Best Practice Guidelines to Support Refugee-Background Tertiary Learners in New Zealand)’을 발간하였다.

## (3) 장애 학생 지원

뉴질랜드 정부는 특수 교육 지원 대상자를 신체적 장애나 질병이 있는 학생, 행동 문제가 있는 학생,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분류하고 각 대상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장애나 질병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입학 전에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 지체, 학습 지체, 장애, 행동이나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지 식별한다. 학령기 아동에게는 학교 통학 서비스와 특수 컴퓨터, 시각 및 청각 보조용품을 제공하며, 학교 통학 지원 학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제공한다. 학교는 장애 학생들이 더 편리하게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을 변경하기 위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접근을 위해 문을 넓히는 등의 개선이 포함된다. 가정은 학교에서 자녀를 도와줄 보조 교사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오랫동안 아픈 경우 교사가 병원이나 집에 방문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행동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는 교육부의 심화 서비스(Intensive Wraparound Service)를 제공한다. 지적 장애를 포함하여 매우 복잡한 학습 또는 행동 문제가 있는 어린이를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다. 이 서비스는 보조 교사를 제공하는데 이들은 특별한 교수 전략을 지원하거나 학급 또는 학교 전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직접 협력한다.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도와주는 서비스는 입학 전 조기 식별 및 개입 서비스가 있다. 학

---

령기 아동에게는 개별 교육 계획(Individual education plan)을 제공하며 이는 학생에게 필요한 자원과 보조 기술, 보조 교사, 가정에서 학습을 돕는 방법, 발달 정도 측정 방법을 포함한다. 매우 특수한 학습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교사 시간, 전문가의 도움, 점자 기계 용지나 특수 펜과 같은 특수 품목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 3. 맺음말

호주와 뉴질랜드는 다양한 배경과 필요를 가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돕고 있다. 호주에서는 난민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문화적 적응과 언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을 설립하였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복지 프레임워크, 비유(Be You) 프로그램, 학생 웰빙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뉴질랜드에서는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다양성 존중을 교육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포용적인 교육(Inclusive education)을 시행하고 있다. 학습자의 유형과 요구를 세분화하고 각 학습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다. 난민 학생을 위해서 교육부와 고등교육위원회는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으며,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초기 진단부터 학습 지원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참고 자료】

- ▶ Australian Government, <https://www.education.gov.au/higher-education/support-students>
- ▶ Inclusive Education, <https://inclusive.tki.org.nz/>
- ▶ New Zealand Government, <https://www.govt.nz/browse/education/learning-support/>
- ▶ NSW Government, <https://education.nsw.gov.au/teaching-and-learning/multicultural-education/refugee-students-in-schools>
- ▶ STARTTS, <https://www.startts.org.au/about-us/our-clients/>
- ▶ Victorian Government, <https://www.schools.vic.gov.au/supporting-students-refugee-backgrounds>